

다산학 43호 (2023.12) | 007~068

다산 정약용 문학의 미의식 — 시詩를 중심으로

김봉남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교수

목차

- 머리말
- 다산의 시문에 나타난 미의식
- 맺음말

1. 머리말¹⁾

본 논문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시문에 나타난 미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미의식’이란 미美에 대해 느끼고 판단하는 의식, 또는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제작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산이 시와 산문으로 담아낸 수많은 내면의식 가운데, 특히 아름답다고 느끼고 판단한 것 속에 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물음이 미학의 주요 문제가 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 내가 진정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한다면, 그보다 앞서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긴 의식이 내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가장 바라는 것에 미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다산이 평생 바라고 원했으며,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미의식으로 ‘은隱’과 ‘제濟’와 ‘진眞’과 ‘회悔’를 꼽을 수 있다. ‘은隱’은 자신의 몸이나 재능을 숨기는 것이고, ‘제濟’는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고, ‘진眞’은 천진天眞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고, ‘회悔’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은隱’·‘제濟’·‘진眞’·‘회悔’를 다산의 중요한 미의식으로 꼽은 이유는 무엇인가? 논자는 작년 봄에 다산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다산 문학에 나타난 미학적 측면에 대해 발표를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 한국한문학과 미학에 관한 논문과 다산 문학과 미학 관한 논문을 찾아보았는데, 한국한문학과 미학에 대한 논의는 그

1) 이 연구는 202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2023년 2월 2일에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주최한 제35회 다산학 학술회의(장소: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수가 많지 않았고,²⁾ 다산 문학에 나타난 미학적 측면이나 미의식을 다룬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이 과제가 조금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고심을 거듭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산의 미학사상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다산 문학에 나타난 미의식에 대해 조명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논자는 이전부터 다산의 내면의식에 관심이 많아 「다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변모양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다산의 내면의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그 결과 다산의 내면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대략 파악하고 있었다.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다산의 시문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내면의식들 중에서 미의식이라 할 수 있는, 즉 다산이 가장 바라고 원했으며 오랜 기간 견지하였던 중요한 내면의식 네 개를 선정하였다. 그것이 바로 본론에서 살펴볼 ‘은隱’과 ‘제濟’와 ‘진眞’과 ‘회悔’이다.

본론에서는 이 네 가지 미의식이 다산의 삶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모했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논의의 근거는 『정본定本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실려 있는 다산의 시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논의의 근거로 삼은 작품은 시가 산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산문보다는 시에 다산의 내면의식이 더 밀도 있게 녹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산의 시문에 나타나 있는 문학적 기법과 형식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약용’이라는 한 인간의 총체적 삶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내면의식에 함축된 미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2) 한국한문학과 미학 관련 논문은 논문집으로 묶여진 두 권이 있다. 한국한문화회 엮음, 『한국한문학과 미학』, 태학사, 2003; 강민구, 『한국한문학의 미학적 접근』, 보고사, 2012.

삼는다. 본 논문을 통해 다산이 일생 동안 견지했던 미의식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2. 다산의 시문에 나타난 미의식

1) 은隱

다산의 시문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미의식 가운데 하나인 ‘은隱’은, 자신의 자취와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것을 ‘은隱’이라는 한 글자로 표현하고자 한다. 다산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러한 의식은 다산이 초년기에 지은 시문에 자주 등장한다. 본론에서 다른 미의식보다 ‘은隱’에 대해 가장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은隱’은 다산의 삶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의 자취를 산천山川에 숨기고 사는 ‘은일’을 지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재능과 아름다운 면모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은거하며 책을 읽고 경전을 연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 후자의 경우는 오랜 기간 연마한 자신의 재능을 품고 있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후자에 대해서 다산은 ‘함장숨章’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다산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숨김의 미의식은 외적 환경과 시기에 따라 ‘은일’과 ‘함장’이라는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은일’과 ‘함장’은 다산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을까? 그 점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은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은일은 다산이 초년기부터 지향한 것이기 때문이다.³⁾ 『여유당전서』 시문집에 처음 등장하는 시 「회동악懷東嶽」은 다산이 14세이던 1775년 초봄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온 부친 정재원(1730~1792)의 이야기를 듣고 지은 시이다. 이 시에서 다산은 수련에서 경련까지는 금강산의 수려한 경치를 묘사하였으나, 미련에서는 문득 “맑고 깨끗하게 속세 벗어나 은거하는 사람 없는 것이 애석하네.”⁴⁾라고 읊었다. 다산이 결구結句에서 ‘은거하는 사람’에 대해 거론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이미 다산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산천에 은거하고 싶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산은 이 시를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근처에 있는 윤길산 수종사에 올라 「유

3) 다산이 초년기부터 ‘은일’을 바라고 지향하게 된 것은, 다산 가문의 혈통과 정치적 분위기가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제가승초략題家乘抄略」에서 자기 집안의 특별한 기풍 네 가지에 대해 거론하였는데, 그중에 “김새를 보고 미리 떠나 그 화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일체의 권력으로 인한 쟁탈과 경쟁을 벌이는 장소에는 언제나 몸을 사리고 앞서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가문의 기풍이 다산의 은일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산은 유배지 강진에서 조상들의 덕을 서술하여 종족의 아름다움을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가승유사家乘遺事」를 지었는데, 그 글에서 “고조부 이래로 삼대 동안 벼슬하지 않았는데 세상을 일찍 떠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많은 위인과 절사들이 과거장에서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고 왕왕 산택과 전원 가운데서 거닐며 유유자적하였다. 대개 당론이 고질화되어 자갈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친구를 저버리고 시세에 아첨하여 골육 간에 서로 해치지 않는 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다산은 이 글을 통해서 고조부 정도대·증조부 정항신·조부 정지해가 벼슬하지 않은 이유는, 당론이 고질화된 정계에 나아가 권력자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산택과 전원 가운데서 유유자적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당론과 당쟁이 고질화되어 버린 정국은 다산이 태어나 성장한 초년기에도 여전하였다. 특히 1762년(영조38) 5월 22일에 英祖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임오화변이 일어났을 때는 극심하였다. 당시 다산의 부친 정재원은 임오화변의 참상을 듣고 출사를 포기하고 향리로 돌아왔는데, 며칠 뒤인 6월 16일에 다산이 태어나자 아들의 아명을 귀농歸農이라 짓고, 아들이 장차 벼슬길에 나가 정쟁에 화를 당하지 말고 전원에는 은거하며 天壽를 다하기를 바랐다. 이러한 것이 다산이 초년에 은일을 바라고 지향하도록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4) 『시집』 권1, 「懷東嶽」(『定本』 제1책, 163쪽). “惜無棲隱客, 瀟灑脫塵表.”

수종사(游水鐘寺)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 시에서도 수련에서 경련까지는 수종사를 찾아 가는 여정과 그곳의 풍경을 읊더니, 미련에서는 문득 “유람이 이로부터 두루 미칠 것이니, 은일의 기약을 어찌 다시 그르치리오.”⁵⁾라고 읊었다. 이 시에서 14세 소년 다산은 스스로 맺은 ‘은일의 기약’에 대해 읊으며 세월이 흘러도 은일의 기약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1778년(다산 17세) 가을에, 다산은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적벽과 물염정을 유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은 시 「유적벽정자(遊赤壁亭子)」의 미련에서 “유독 어여빠 여긴다네! 산수가 외진 곳에 자리 잡아, 명성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서.”⁶⁾라고 읊었다. 다산은 물염정과 적벽이 외진 곳에 숨어 있어서 그 명성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어여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며칠 후에 다산은 화순현감으로 재직하던 부친을 모시고 진사 조익현의 시냇가 정자에 놀러 갔었는데, 이때 지은 시의 마지막 연에서 “방공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야외에서 함께한다.”⁷⁾라고 읊었다. 후한(後漢) 말의 이름난 은사(隱士)였던 방공은 현산 남쪽에서 아내와 함께 농사짓고 살았는데, 형주자사 유표가 관직을 준다 하며 초빙했으나 여러 번 거절하고 녹문산에 은거했던 인물이다. 당시에 다산은 은사 방덕이 품었던 은일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일의 삶을 살고 있던 조익현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였던 것이다. 이듬해인 1779년(18세) 2월에 다산은 화순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도중에 지은 시 「유용계관(遊龍谿阪)」에서 “봄바람 부는 곳곳엔 푸른 연기 피어나고, 외진 곳에서 살아가며 순박한 풍속 지녔네. 곧

5) 『시집』 권1, 「游水鐘寺」(『定本』 제1책, 163쪽). “游歷玆自遍, 幽期寧再誤.”

6) 『시집』 권1, 「遊赤壁亭子」(『定本』 제1책, 170쪽). “獨憐山水安孤僻, 不放名聲與世聞.”

7) 『시집』 권1, 「陪家君同尋曹氏溪亭」(『定本』 제1책, 169~170쪽). “爲有龐公志, 欣然野外同.”

장 가족 이끌고 이곳에 숨고 싶으니, 속세에서 벼슬 구하는 것보다 낫겠네.”⁸⁾라고 읊었다. 전주 고산현 용계산 골짜기에 숨어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산으로 하여금 처자를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가 살고 싶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다산은 초년기에 자취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좋아하였고, 은일의 삶을 살고 싶어 하였다. 다만 다산이 추구한 은일의 삶은 조용한 산천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은거하여 독서하고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다산은 20세인 1781년 4월 15일에 이벽(1754~1785)과 함께 배를 타고 한양으로 들어가며 지은 시의 미련에서 “내 재주 졸렬하여 별 수 없음 잘 알아, 남은 경전 연구하여 옛 성현들께 보답하러네.”⁹⁾라고 읊었는데, 이 시를 통해 당시 다산의 뜻이 유가경전儒家經傳을 연구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1782년(21세)에 지은 「술지述志」에서는 “힘을 다해 공자와 맹자의 도를 따르고, 세상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을 것이네.”¹⁰⁾라고 하며, 오직 공자와 맹자의 도를 따르는 데 뜻을 두고 있으며 세상의 명리에 대해서는 뜻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산의 은일의 삶과 경전연구의 열망은 구세제민救世濟民의 열망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다산 17세이던 1778년 겨울이었다. 이때 다산은 화순 동림사에서 중형 정약전과 함께 유가경전을 공부하였는데, 자신은 『맹자』를 읽고 정약전은 『상서』를 읽으며¹¹⁾ 임금과 백성

8) 『시집』 권1, 「踰龍谿阪」(『定本』 제1책, 178쪽). “春風處處爐煙青, 僻居食力懷淳俗. 徑欲携家此中隱, 勝向塵途巧爵祿.”

9) 『시집』 권1, 「同友人李德操槩乘舟入京」(『定本』 제1책, 184쪽). “深知拙劣絡無賴, 欲把殘經報昔賢.”

10) 『시집』 권1, 「述志二首」(『定本』 제1책, 187~188쪽). “戮力返洙泗, 不復問時宜.”

11) 『문집』 권13, 「東林寺讀書記」(『定本』 제3책, 78쪽). “余與仲氏住棲東林, 仲氏讀尚書, 余讀

을 요순시대의 임금과 백성으로 만들려는 뜻이 있다¹²⁾고 하였다. 이때부터 다산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경전연구와 구세제민은 그 길이 달라서 동시에 이루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산은 구세제민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초시와 대과에 급제하여 출사해야 했기 때문에, 은거하여 경전을 연구하려고 했던 초년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

다산은 1779년(18세) 3월에 부친의 명을 받들어 공령문功令文의 여러 체를 공부하기 위해 한양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친의 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령문을 익히는 것은 다산에게 고역이 되고 말았다. 다산은 이해 여름에 장인 홍화보가 경상 우도병사로 나간다는 기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지은 시¹³⁾ 수련에서 “긴 여름날 도성에서 시름하다가, 조각배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네.”라고 읊고, 미련에서는 “진퇴를 정하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살아가는 이치를 어부에게 물어보네.”라고 읊었다. 이 구절을 통해 다산이 비록 구세제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령문을 익히고는 있지만, 마음에는 아직 경전연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81년(20세) 2월에 부친 정재원이 파직당하고 장인 홍화보가 유배된 사건¹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다산은 심기일전하지 않

孟子.”

12) 『문집』 권13, 「先仲氏墓誌銘」, 〈附見閒話條〉(『定本』 제3책, 242~247쪽). “昔在戊戌冬, 家君宰和順縣, 余與巽菴, 讀書東林寺. 四句了孟子一部, 微言妙義, 多所印可. 氷泉漱齒, 雪屋無寐, 每語有堯舜君民之志.”

13) 『시집』 권1, 「夏日還菴川」(『定本』 제1책, 175쪽). “長夏愁城邑, 扁舟返水鄉. 村稀成遠眺, 林茂有餘涼. 衣帶從吾懶, 詩書閱舊藏. 行休苦未定, 生理問漁郎.”

14) 1780년 겨울에 예천군수로 있던 부친 정재원과 영우절도사로 있던 장인 홍화보가 영남암행어사 이시수(1745~1821)의 탄핵을 받고 한양으로 소환되어 1781년 2월에 부친과 장인이 문초를 받은 뒤, 부친은 고신을 환수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장인은 평안도 속천

을 수 없었다.¹⁵⁾ 다산은 굳게 마음을 먹고 한양으로 들어가 과시科詩를 공부하였고, 이후 4번 만에 성균관 시험에 합격하였다. 마침내 1783년(22세) 2월에는 초시에 합격하였고, 6년이 지난 1789년 1월 27일에는 다섯 번의 도전 끝에 문과에 수석으로 급제하였다. 다산은 회정당에 들어가 임금 정조를 알현하고, 대과 급제자로서 부친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도중에 지은 시에서 “반평생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만년에 백구와 맺은 언약을 지키리라.”¹⁶⁾라고 읊었다. 대과에 급제한 다산은 임금의 지우를 받아서 구세제민의 뜻을 이루려는 꿈을 본격적으로 꾸게 된 것이다.

1789년에 회릉직장을 시작으로 관계官界에 첫 발을 내디딘 다산은,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벼슬이 점차 높아졌다. 그러나 다산의 벼슬이 높아질수록 권세를 잡고 있던 노론벽파老論僻派의 견제와 공서파攻西派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다산은 구세제민의 뜻을 이루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다산은 31세인 1792년에 홍문관 수찬으로서 어전에서 경연을 마치고 물러나 지은 시의 미련에서 “갈매기는 웅당 초년의 약속을 기억하겠지, 가죽 허리띠 팔아서 낚시 배를 사고 싶네.”¹⁷⁾라고 읊었다. 이때 다산은 경연에서 정조를 모시고 학문을 강

으로 유배되었다.

15) 다산의 가문은 정자급부터 정시윤까지 직계 조상이 8대 연속으로 옥당(홍문관)에서 벼슬을 지냈지만, 이후 고조부(정도태:정시윤의 아들)·증조부(정항신)·조부(정지해) 3대가 벼슬을 하지 않아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 부친 정재원이 영조의 특지로 연천현감·화순현감·예천군수 등을 지냈지만, 가세는 그리 넉넉하지 못한 편이었다. 그런데 이제 부친이 탄핵을 받아 예천군수에서 파직되니 집안 형편은 더욱 좋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다산으로 하여금 과거 공부를 하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아울러 다산은 자신이 ‘8대 옥당’이라는 가문의 영광을 이어서 기울어진 家勢를 일으켜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16) 『시집』 권1, 「陪家君還舊川」(『定本』 제1책, 219쪽). “且放半生酬聖眷, 晚來還守白鷗盟.”

17) 『시집』 권2, 「講筵退有作」(『定本』 제1책, 246쪽). “白鷗應識初年約, 欲取銀鯉買釣船.”

론하면서 임금의 지우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홍문관 수찬이 되어, 8대 연속으로 옥당(홍문관)에 올랐으나 고조부부터 부친까지 4대째 끊어진 가문의 영예를 다시 이어서 9대가 옥당에 오른 가문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산의 마음은 즐겁지 않았다. 몸은 홍문관에 있었지만, 마음은 고향의 강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다산은 어렸을 때 집 앞 강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와 맺은 은일의 약속을 떠올리며, 관리가 착용하는 가죽 허리띠를 팔아서 낚시 배를 사고 싶다고 하였다. 당시에 다산이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반대파의 강한 견제와 공격을 받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안하였기 때문이다. 다산은 자신이 구세제민의 뜻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답답한 마음에 차선책을 떠올려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며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1792년 4월 9일에 부친 정재원이 세상을 떠나자, 다산은 부친의 삼년상을 지내기 위해 홍문관 수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산은 33세인 1794년 7월 28일에 국자감(성균관) 직강으로 복직하였으나 경색된 정치적 분위기는 더욱 위태로워졌음을 느꼈다. 다산은 이때 지은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除國子直講赴館」

게으른 천성 따라 버려지려고 했으니,
 선발된 것은 기대한 것이 아니라네.
 거미줄 많이 쳐져 있어서,
 재갈 물린 말 신세 면치 못할 것인데,

친한 벗들은 낙척하여 멀리 떠났고,
 세상길은 구불구불하여 위태롭네.
 날벌레처럼 공손히 천성을 따를 뿐이니,
 억지로 애를 쓴들 끝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오.

放棄從吾懶, 甄收異所期
 故多蛛布網, 未免馬銜羈.
 錯落親交遠, 迂回世道危.
 肖翹共順性, 黽勉竟何爲.¹⁸⁾

다산이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처지가 위태롭다고 한 것은, 1791년 호남에서 일어난 진산사건 이후 공서파가 노론벽파와 규합하여 남인 신서파를 압박하고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산이 삼년상을 지내는 동안 주변에 있던 남인 친구들이 대부분 낙척하여 한양을 떠나 멀리 가버려서 다산의 마음은 더욱 쓸쓸하였다.

다산은 이제 출사한 것을 후회하기에 이르렀다. “깨끗한 강호에서는 세월이 더디게 흐르는데, 흥패 하나 때문에 마음으로 맺은 기약을 어겼네.”¹⁹⁾라고 읊은 것이 그 근거이다. 다산은 1795년(34세)에 금정찰방으로 재직할 때 친구 강이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평생의 소원은 산수를 소요하는 것이며 또한 현명하고 뛰어난 장자와 함께 물외에서 노닐

18) 『시집』 권2, 「除國子直講赴館」(『定本』 제1책, 247쪽).

19) 『시집』 권2, 「秋風八首次杜韻」第四(『定本』 제1책, 249~250쪽). “瀟洒江湖日月遲, 紅牌一面誤心期.”

며 시를 읊조리는 것입니다.”²⁰⁾라고 하였고, 속세의 명리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산중에 은거하며 명산을 유람한 김창흡(1653~1722)을 흠모하여 “위대하도다! 삼연이시여, 「청사전淸士傳」에 넣어도 부끄럽지 않네. 어찌 생각했으랴 경상의 가문에서, 홀연 이 같은 선골이 나타날 줄을. 현면軒冕을 밟고 길게 휘파람 불며,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네.”²¹⁾라고 읊으며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밝혔다. 이제 정치가로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다산은 초년에 꿈꾸었던 은일의 삶을 떠올리며 자신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산은 벼슬에 있는 동안 당나라 숙종 때의 학사 장지화(732~774)를 여러 번 거론하며 흠모하였다. 장지화는 숙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벼슬에서 물러나 스스로 ‘연파조수煙波釣叟’라는 호를 짓고 초계와 삼계 사이에 배를 띄우고 여생을 보낸 인물이다. 다산은 사환기에 생계에 대한 문제와 임금에 대한 의리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저하였다. 그러나 장차 낙향하여 강에 띄울 배의 이름을 ‘초상연파조수지가菰上煙波釣叟之家’라고 적고 공장工匠에게 부탁해 나무에 새기도록 하였고, 그것을 몇 년째 간직하였다.²²⁾ 몇 년 뒤인 1799년 6월에 사헌부 헌납 민명혁의 탄핵을 받자, 다산은 형조참의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는 소를 올리고 물러났는데, 그날 지은 시에서 “재상 인장 탐냈던 소진과 장의를 오래전부터 유감으로 생각했고, 초계와 삼계에서 고깃배

20) 『문집』 권19, 「與姜仁伯履元」(『定本』 제4책, 108~109쪽). “鏞生平所願, 卽徜徉山水, 而又得與賢豪長者, 游吟物外.”

21) 『시집』 권2, 「古詩二十四首」(『定本』 제1책, 280~284쪽). “偉哉金三淵, 不愧淸士傳. 豈意卿相門, 忽此仙骨現. 長嘯蹕軒冕, 游歷名山遍.”

22) 『문집』 권14, 「菰上煙波釣叟之家記」(『定本』 제3책, 119쪽). “志和本亦館閣學士, 晩年退而爲此, 自號煙波釣叟. 余顧聞其風而悅之, 書之曰菰上煙波釣叟之家, 令工刻之爲榜而藏之者數年.”

를 탔던 장지화의 일을 이미 따르려고 했네.”²³⁾라고 읊었다. 다산은 비로소 장지화가 한 일을 자신이 따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다산은 1800년 초여름에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장지화가 했던 대로 작은 배를 부가浮家로 꾸미고 ‘초상연파조수지가’라고 새긴 나무판을 배에 달고 물 위를 떠다니려고 계획하였다.

나는 약간의 돈으로 배 하나를 사서 배 안에 물고기 잡는 그물 네댓 개와 낚싯대 한두 개를 갖추어 놓고, 또 술과 잔과 소반 같은 여러 가지 양생에 필요한 기구를 준비하며 방 한 칸을 만들어 온돌을 놓고자 한다. 두 아이들에게 집을 지키게 하고, 늙은 아내와 어린아이 및 어린 종 한 명을 이끌고 부가범택浮家汎宅을 타고 수종산과 초수 사이를 왕래하면서 오늘은 오계의 연못에서 고기를 잡고, 내일은 석호에서 낚시질하고, 또 그 다음날은 문암의 여울에서 고기를 잡을 것이다. 바람을 맞으며 물 위에서 잠을 자고 마치 물결에 떠다니는 오리들처럼 등실등실 떠다니다가, 때때로 짧은 시가를 지어 스스로 기구하고 쓸쓸한 정회를 풀고자 하니,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²⁴⁾

그러나 다산이 ‘부가범택’을 만들어 물 위를 떠다니려고 할 때, 갑자

23) 『시집』 권3, 「遭臺彈陳疏乞解日書懷」(『定本』 제1책, 370쪽). “久恨蘇張貪相印, 已從苕霅買漁舟.”

24) 『문집』 권14, 「苕上煙波釣叟之家記」(『定本』 제3책, 119쪽). “余欲以一金買一舟, 舟中置漁網四五張, 釣竹一二竿, 備鼎鑪楮盤諸凡養生之器, 爲屋一間而炕之. 令二兒守家, 挈老妻穉子及僮一人, 浮家汎宅, 往來於鍾山苕水之間, 今日漁于粵溪之淵, 明日釣于石湖之曲, 又明日漁于門巖之瀨. 風餐水宿, 汎汎若波中之鳬, 時爲短歌小詩, 以自抒其崎嶇歷落之情, 是吾願也.”

기 정조 임금의 급한 소환을 받았다. 다산은 어쩔 수 없이 ‘초상연파조수지가’라고 새긴 나무판을 유산西山의 정자에 달아 놓고²⁵⁾ 곧장 한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1800년 6월 28일에 임금은 승하하였고, 1801년 1월에 다산은 중요한 남인 인사들과 함께 신유옥사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 그로 인해 ‘부가범택’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만약 다산이 반대파의 탄핵을 받지 않고 형조참의의 소임을 자신의 의지대로 수행할 수 있었다면, 낙향하여 ‘부가범택’을 띄우고자 한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가범택’을 띄우고 강 위에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은 다산이 바라던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차선택이었다. 다산이 진정으로 소망했던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89년 1월 27일에 다산이 대과에 급제한 뒤에 부친을 모시고 금의환향할 때 지은 시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시에서 다산은 “반평생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만년에 백구와 맺은 언약을 지키리라.”²⁶⁾라고 읊었다. 다산의 최대 소망은 이윤·부열·이필과 같은 명재상이 되어 임금을 도와 요순시대의 지극한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선택이 좌절될 경우에 차선택이 최선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산의 은일에 대한 향념은 대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간 이후에 점차 변모하였다. 특히 사환기 중엽부터 다산은 ‘함장含章’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함장은 『주역』의 “아름다운 덕을 내면에 간직해야 꿈을 수 있으니 때가 되면 덕을 발휘한다.”(含章可貞, 以時發也.)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드러내지 않고 숨긴다는 점에서 은일과 함장은 공통

25) 『문집』 권14, 「苔上煙波釣叟之家記」(『定本』 제3책, 119쪽). “方將料理浮家, 聖主聞其去, 令內閣召還, 嗟呼! 吾且奈何哉! 方其復歸于京也, 出其勝, 勝于西山之亭而去.”

26) 『시집』 권1, 「陪家君還菴川」(『定本』 제1책, 219쪽). “且放半生酬聖眷, 晚來還守白鷗盟.”

점을 지니고 있지만, 함장은 오랜 기간 연마하여 간직한 자신의 재능을 적절한 때가 되면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일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 다산은 사환기에 노론벽파라는 강력한 정적이 주도하는 관계官界에서 늘 함장을 옆두에 두고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다산이 ‘함장’이라는 말을 사용한 예는 1794년(33세) 10월 2일에 친구 윤지범·한치웅과 술 마시며 국화를 읊은 시에 처음 보인다. 다산은 이 시의 미련에서 “항상 아름다움을 속에 간직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없다네.”²⁷⁾라고 읊었는데, ‘항상 아름다움을 속에 간직하고’의 원문이 바로 ‘함장’이다. 다산은 윤지범의 인품을 ‘함장’이라는 용어로 칭송함과 동시에 자신이 지향하는 바도 ‘함장’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38세인 1799년에 황주영위사로 재직할 때 지은 「황주월파루기黃州月波樓記」에서는 “이로써 보건대, 사람도 아름답게 빛나는 광채가 가슴속에 쌓여 있는 사람은 오직 이를 가슴속에 쌓아서 깊이 간직하기만 하고 남에게 가뵈이 내보이려고 하지 않으니, 이것이 곧 남들이 그를 잊지 못하게 되는 까닭이다.”²⁸⁾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아름답게 빛나는 광채를 숨기고 남들에게 내보이지 않아야 남들이 그를 잊지 못하게 된다고 하며 ‘함장’을 강조하였다. 심지어 1801년 1월에 일어난 신유옥사에 연루되어 3월 2일에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는 중에도 ‘함장’을 생각하였다. 다산은 장기로 유배되는 도중에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충청도 하담에 잠시 들렀는데, 이때 두 아들 정학연과 정학유에게 보낸 편지에 “근본을 두터이 배양하고 소소한 광채 따위는 드러내지 말기를 지극히 바란다.”²⁹⁾라고

27) 『시집』 권2, 「夜與尹彝敘·韓侯父飲酒, 賦菊花」(『定本』 제1책, 256~257쪽). “常有含章色, 仍無競進情.”

28) 『문집』 권14, 「黃州月波樓記」(『定本』 제3책, 115쪽). “由是觀之, 人之有文采菁華之積於中者, 唯醞藉包蓄而不輕示人, 斯人之不能忘也.”

29) 『문집』 권21, 「寄二兒」(辛酉三月初二日, 到荷潭書)(『定本』 제3책, 242~243쪽). “厚培根基,

당부할 정도였다.

다산은 1801년 1월에 일어난 신유옥사에 연루되어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백서사건으로 인해 한양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전라도 강진으로 이배되면서 18년의 기나긴 유배지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비록 자의에 의한 은거가 아니라 국법에 의한 강제적인 유배였지만, 이 기간에 다산은 자신이 초년기에 품었던 은둔하여 경전을 연구 하겠다는 뜻을 이룰 수 있었다. 비록 초년에 꿈꾸었던 자유롭고 완전한 은일의 삶은 아니었지만, 다산은 유배지 강진에서 천신만고 끝에 여러 제자들과 함께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편찬하는 기업을 토하였다.

다산은 1818년 8월에 해배되어 고향에 돌아온 후에 비로소 초년에 꿈꾸었던 은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다산이 간절히 바라던 삶은 구세제민에 있었기 때문에 은일의 삶은 다산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천신만고의 노력으로 편찬한 500여 권의 저술에는 구세제민의 방책이 상당 부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재상에 등용된다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망해 가는 나라를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다산은 해배된 직후부터 조정朝廷에서 자신을 다시 등용해 주기를 학수고대하였지만, 다산을 재임용한다는 왕명王命은 끝내 이르지 않았다.

왕명을 기다리다 지친 다산은, 생계를 모색하기 위해 해배된 지 8개월쯤 지난 1819년 윤4월 12일에 친구 약암 이재의(1772~1839)와 함께 경기도 양근에 있는 문암장을 찾아갔다. 다산은 문암장으로 가는 배 안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而韜瑣瑣之光稜，至望至望。”

「閏四月十二日, 同李約菴游門巖莊, 舟中作」

꿈속에서 문암의 농장을 그리워한 것이,
지금까지 사십 년이나 되었네.
산 속에 은거할 뜻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남쪽 바닷가에서 귀양살이하셨네.
이제 노인이 되어 아내와 함께 숨어 살려고,
좁쌀 가지고 척박한 문암장의 밭을 찾아가네.
남은 경전 다 연구하지 못한 것 애석하여,
영원히 속세를 떠날 것을 생각하노라.

夢想門巖墅, 如今四十年.
不成山裏臥, 轉作海南遷.
白髮謀偕隱, 黃粱問薄田.
殘經惜未了, 長逞意飄然.³⁰⁾

이 시를 통해 네 가지를 알 수 있다. 즉 다산이 그동안 얼마나 문암장을 그리워하였는지 알 수 있고, 다산이 사환기에 벼슬을 버리고 은둔하지 않은 것을 몹시 후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내와 함께 숨어 살기 위해 좁쌀을 가지고 문암장을 찾아가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생애는 아직 끝내지 못한 유가경전연구에 매진하리라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30) 『시집』 권7, 「閏四月十二日, 同李約菴游門巖莊, 舟中作」第一(『定本』 제3책, 642~643쪽).

같이 다산의 이러한 생각은 당시 다산이 원했던 최선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다산을 등용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상, 차선은 최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이후에도 다산은 매일 자신을 등용한다는 임금의 명령이 이르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이르지 않았다. 그 기간은 1818년 8월에 해배되어 고향에 돌아온 후 1836년 2월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8년이나 되었다.

다산은 임금이 자신을 등용하지 않거나 혹은 등용하지 못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산은 그 일에 대해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았고, 오히려 체념하고 달관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산은 고향에 은거하며 지인들과 함께 대자연을 유유자적하게 유람하였고, 생계를 위해 문암장에 있는 밭을 일구고 인삼농사를 지었다. 그러는 중에도 독서와 경전연구를 중단하지 않았다. 다산이 71세인 1832년 가을 저녁에 사라담鈔鑪潭에 배를 띄우고 놀면서 읊은 「담상석범潭上夕泛」에는 세상일을 체념하고 대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노인 다산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潭上夕泛」

강호의 참된 즐거움을 어찌 하리오,
면류관도 진정 도룡이 하나와 바꾸기 어렵다네.
반평생 나그네로 장기 어린 바닷가를 소요하다가,
만년에야 노인의 호칭이 연파를 물려받았네.
부는 바람 맞아 몽롱하게 취해도 아무 상관없고,
등근 달 맞아서는 애오라지 요조장에 화답하네.

이는 하늘이 한 구역을 나에게 탕목지로 주고서,
여러 벗들과 함께 유유자적하게 지내도록 허락한 것이네.

江湖洵樂奈之何, 六冕誠難換一簑.
半世客遊消瘴海, 晚來叟號襲煙波.
迎風未害蓍騰醉, 候月聊賡窈窕歌.
天賜一區湯沐地, 許將諸友共婆娑.³¹⁾

다산은 71세에 지은 이 시에서, 자신이 고향에 은거하여 천진함을 간직한 채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다. 수련에서는 도롱이 입고 편하고 한가롭게 사는 강호의 참된 즐거움은 임금의 지위와도 바꿀 수 없는 진귀한 것이라고 하였고, 함련에서는 젊었을 때부터 부러워했던 장지화의 ‘연파조수’라는 호를 71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물려받았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시원하게 부는 강바람을 맞으며 배 안에서 흠뻑 취하고, 술에 취한 채로 달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 안에서 『시경』의 「관저」에 화답시를 지으며 놀았다고 하였다. 다산은 사라담에 배를 띄우고 달구경 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미련에서는 이렇게 고향에서 천진함을 간직하며 여생을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선물이라고 하였다.

조정에 등용되지 못한 다산의 허탈한 마음을 채워준 것은 역시 독서와 경전연구였다. 71세인 1832년 가을에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기에 이르렀다. 다산은 노년기 후반에 해당하는 1831년(70세) 9월에 지은 「독립獨立」의 경련과 미련에서는 “공연히 죽장 짚고 절간을 유람할까 생

31) 『시집』 권6, 「潭上夕泛」(『定本』 제1책, 565쪽).

각다가, 이내 다시 작은 배를 낚시터에 띄워볼까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몸이 이미 늙었는지라, 짧은 등잔불만 예전대로 책 더미에 비추도다.”³²⁾라고 읊었다. 이때 다산은 70세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독서를 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32년(71세)에는 시력이 더욱 나빠져서 책을 읽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는데, 이때 지은 「노인일쾌사老人一快事」에서 “노인의 한 가지 유쾌한 일 중에, 눈 어두운 것도 하나라네. 다시는 예경의 소疏를 따질 필요 없고, 다시는 『주역』의 괘사를 연구할 수 없네. 평생 문자에 묶여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깨닫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네.”³³⁾라고 읊은 것을 보면, 여전히 유가경전을 연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819년 여름에 『흙흙신서』를 완성하였고, 겨울에는 『아언각비』를 완성하였다. 1821년 봄에 『사대고례산보』를 완성하였고, 1822년에는 회갑을 맞이하여 그동안 저술한 육경사서와 경세실용에 관한 책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1834년에는 73세의 고령으로 『상서고훈』과 『지원록』을 개수하여 합편하였으며, 이해 가을에는 『매씨서평』을 개정하였으니, 다산이 초년에 품었던 은거하여 경전을 연구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알 수 있다.

비록 은거하여 경전을 연구하고 저술하는 삶은 다산이 가장 원했던 삶은 아니었다. 그러나 구세제민을 위해 힘쓰고자 했던 정치가로서의 소망이 좌절된 이후에 형성된 은일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차선에서 최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산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

32) 『시집』 권6, 「獨立」(『定本』 제1책, 539쪽). “空懷竹杖游僧院, 徑欲瓜皮汎釣臺. 百事思量身已老, 短檠依舊照書堆.”

33) 『시집』 권6, 「老人一快事六首. 效香山體」(『定本』 제1책, 567~569쪽). 제6수. “老人一快事, 眼昏亦一快. 不復訟禮疏, 不得研易卦. 平生文字累, 一朝能脫灑.”

였다. 마치 기름이 없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불을 피워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았다.

2) 제濟

만약 다산이 일생 동안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구세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와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의 구세제민을 한 글자로 표현한 것이 ‘제濟’이다.

다산은 사환기에 성호 이익(1681~1763)의 형 이해(1647~1673)의 손자로 성호에게 직접 수학한 목재 이삼환(1729~1813)과 교분이 있었는데, 이삼환은 당시 금정찰방으로 재직하던 다산에 대하여 “그의 마음은 매우 넓고, 그의 뜻은 천하 사람들을 두루 구제하는 것에 있었다.”³⁴⁾라고 하였다. 이삼환의 말처럼 다산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고난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다산의 의지는 『마과회통서』에 잘 나타나 있다. 다산이 1797년(36세) 겨울에 곡산부사로 재직하며 『마과회통』 12권을 완성했을 때, 다산의 아홉 명의 자녀 중에 여섯 명의 자녀는 이미 천연두와 다른 질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뒤였다. 다산은 비록 자식들의 죽음은 막지 못했지만, 다른 집 자식들이 천연두로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마과회통』을 지은 것이다. 그래서 『마과회통』의 서문에서 “내가 글을 읽고 도를 배우는 것은 천하의 인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다면 황제黃帝의 의서를 읽어서 의약의 오묘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것 또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다.”라고 한 북송의 정치가 범중엄(989~1052)의 말을 인용하고, “옛 사람의 인자하고 넓

34) 『與猶堂全書補遺』, 『金井日錄』, (11월)(『定本』 제37책, 73~76쪽). “其心地恢廓, 志存兼濟.”

은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였다.³⁵⁾ 천하의 인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범중엄의 말을 빌려서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다산은 천하의 인명을 살리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산은 17세이던 1778년 겨울에 화순 동림사에서 『맹자』를 읽고 임금과 백성을 요순시대의 임금과 백성으로 만들려는 뜻을 품었는데, 이것이 다산이 천하의 인명을 살리고자 결심한 시작이었다. 이후 다산은 공령문과 과시를 익혀 1783년 2월에 초시에 합격하였고, 대과 급제를 위해 사륙문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산이 느낀 고달픔은 적지 않았다. 예컨대 23세인 1784년 여름에 다산은 『손무자』를 읽고 지은 시를 통하여 육경은 물론이고 제자백가의 책들도 두루 공부하고 싶다고 하였다. 특히 강개한 마음으로 병서를 읽어 만고에 빛나는 공적을 한번 세우려는 결심도 해보았으나, 스스로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책을 덮고 장탄식을 했다고 하였다.³⁶⁾ 그리고 같은 해 4월 15일에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들어가며 지은 시에서는 “부모님의 은혜가 이와 같으니, 그 은덕을 저버림은 결국 잘못하는 것이리라.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오장이 타는 듯 괴로워서, 우울한 마음 털고 높이 날고 싶네.”³⁷⁾라고 읊기도 하였다. 다산은 원치 않는 과거공부를 하며 오장이 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지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일념으로 과거공부에 매진하였던 것이다.

35) 『문집』 권13, 「麻科會通序」(『定本』 제3책, 41~42쪽). “昔范文正有言曰, 吾讀書學道, 要以活天下之命, 不然讀黃帝書, 深究醫奧, 是亦可以活人. 古人立心之慈且弘如是也”

36) 『시집』 권1, 「讀孫武子」(『定本』 제1책, 201~202쪽). “六經本可樂, 九流思徧窺. 慷慨讀兵書, 萬古期一馳. 此意良已涇, 掩卷一長噫.”

37) 『시집』 권1, 「孟春歸自菰川」(『定本』 제1책, 201쪽). “恩勤既若斯, 棄德終爲非. 念茲五情熱, 邑邑思舊飛.”

다산은 1783년(22세) 2월에 초시에 합격하였고, 9월 28일에는 정시庭試의 초시에 합격하였으며, 1785년(24세) 11월 3일에는 황감제黃柑製의 초시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고무되어 1786년(25세) 봄에는 “질박한 요순시대의 풍속, 신근辛勤했던 이윤과 부열. 나의 인생 아직 저물지 않았으니, 아득히 한번 뜻을 품어 보노라.”³⁸⁾라고 읊으며, 이윤과 부열 같은 훌륭한 재상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표출하였다. 이로서 구세제민의 뜻은 다산에게 가장 중요한 필생의 사업이 되었다. 다산은 26세인 1787년 6월에 정조 임금에게 『병학통』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에 감동하여 “이필이 산중으로 돌아갈 날 언제인가? 임금의 은혜 호탕하여 마음을 가눌 수 없네.”³⁹⁾라고 읊기도 하였다. 이필은 당나라 현종·숙종·대종·덕종 등 네 임금을 섬기며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였고 재상까지 지내다가 노년에 산중으로 들어가서 은거한 인물이다. 다산은 그런 이필이 걸었던 길을 따르고자 결심하였던 것이다. 다산은 28세인 1789년 1월 27일에 대과에 급제하고 임금을 알현하고 나온 뒤에는 시에서 반평생은 임금 은혜에 보답한 뒤에, 만년에는 돌아와 갈매기와 맺은 약속을 지키리라⁴⁰⁾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산의 사환기는 순탄치 않았다. 임금의 지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권력을 잡고 있는 노론의 강력한 위세 앞에서 남인의 일원이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크게 낙심하였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산의 행보가 대부분의 남인 신진인사들

38) 『시집』 권1, 「春日澹齋讀書」(『定本』 제1책, 207쪽). “質朴唐虞俗, 辛勤伊傳誠. 吾生未爲晚, 緬邈一含情.”

39) 『시집』 권1, 「重熙堂上謁, 退而有作」(『定本』 제1책, 213쪽). “李泌歸山知幾日, 君恩浩蕩意難裁.”

40) 『시집』 권1, 「陪家君還苕川」(『定本』 제1책, 184쪽). “且放半生酬聖眷, 晚來還守白鷗盟.”

과 달랐다는 것이다. 다산은 정치적 반대파인 노론벽파 인물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다. 다산은 30세인 1791년 5월에 지은 시 「예조행柄鑿行」에서 “공자 또한 엽각獵較을 하셨으나, 어찌 예절을 잊어서 그랬으리.”⁴¹⁾라고 읊었다. ‘엽각’은 ‘사냥을 할 때 서로 다투어 짐승을 잡는 것’인데, 공자가 ‘엽각’을 한 것은 예절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쇠퇴한 세상에 벼슬하면서 잘못된 것을 갑자기 바꿀 수 없었으므로 점진적으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⁴²⁾ 다산은 엽각을 행한 공자의 뜻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다산은 공자를 본받아 점진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론벽파의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다산의 천진天真, 즉 자신과 다르다고 하여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순수하고 참된 마음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다산의 이러한 행동을, 정약전을 비롯한 남인 동료들은 좋게 보지 않았다. 다산도 한동안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 훗날 다산은 친구 윤지눌을 위해 지은 묘지명에서, 1793년 이후에 윤지눌은 오로지 정약전을 좋아하여, 정약전·윤지눌·이유수·한치웅·윤영희·강이원 등과 어울려 남산 아래에 모여 술을 실컷 마시며 온갖 놀이를 하며 놀았으며, 혹은 소릉에서 놀기도 하고, 혹은 직금방에서 놀기도 하며 그 처소를 자주 바꾸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채홍원과 함께 그들의 단정치 못함을 자주 꾸짖었는데, 그러자 윤지눌 등은 자

41) 『시집』 권2, 「柄鑿行」(『定本』 제1책, 243쪽). “魯叟亦獵較, 豈其忘禮節.”

42) 『孟子要義』 권2, 「萬章第五」(『定本』 제7책, 178~181쪽). “孔子, 仕於衰世, 不可卒暴改戾, 故以漸正之.”

신과 채홍원을 자기들 모임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⁴³⁾ 이어지는 글에서 다산은 “이들은 모두 분함을 느끼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세속의 꾸며대고 아침 잘 하는 태도를 흘겨보았다.”⁴⁴⁾라고 하였는데, 윤지눌 등이 흘겨본 대상에 다산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때 정약전조차도 다산이 노론벽파 인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아무 판서, 아무 시랑과 사이좋게 지내고, 나는 술꾼 몇 사람과 이처럼 미친 듯이 지내고 있다. 그러나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물이 용솟음치듯 시세가 험악해지면, 어떤 사람이 서로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⁴⁵⁾

정약전이 언급한 판서와 시랑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산이 당시에 노론벽파의 유력자인 심환지(1730~1802)를 비롯한 몇몇 노론 인사들과 사이좋게 지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⁴⁶⁾

43) 『문집』 권16, 「司憲府持平尹持訥墓誌銘」(『定本』 제3책, 292~295쪽). “癸丑以後, 偏與天全好, (若銓) 日與李周臣(儒修)·韓僉父(致應)·尹畏心(永僖)·姜仁伯(履元), 會于南山之下, 轟飲雜戲, 或于少陵, 或于織錦坊, 屢易其處. 余與蔡邇叔(弘遠)數詆其不端, 故摺不與此會.”

44) 『문집』 권16, 「司憲府持平尹持訥墓誌銘」(『定本』 제3책, 292~295쪽). “皆感憤悲吒, 睥睨流俗修飾脂韋之態.”

45) 『문집』 권16, 「司憲府持平尹持訥墓誌銘」(『定本』 제3책, 292~295쪽). “天全嘗曰, 爾與某尚書某侍郎善, 吾與酒徒數人猖狂如此, 然風起水涌, 不知何者能不相負也.”

46) 다산은 1789년 11월에 서영보와 함께 내각응제시를 지어 정조로부터奇才라는 칭찬을 받았고, 1790년 9월 15일, 정조가 인정전에 친림하여 보인 증광문과별시 때 시험관의 일원이 되어 판서 김상집·참판 민중현·참의 심환지와 함께 예부에서 문을 잠그고 열흘 동안 갇혀 있었다. 다산은 시험이 끝난 뒤에 시를 지어 삼가 김상집·민중현·심환지에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며 다산은 서영보·김상집·민중현·심환지 등과 가까워졌을 것이다.

다산이 30세이던 1791년 10월 26일에 전라도 진산에서 천주교 신자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천주교 의식에 따라 혼백과 위패를 폐지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사건⁴⁷⁾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홍낙안·목만중·이기경 등으로 이루어진 공서파의 주요 인사들은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폐제분주廢祭焚主는 유교사회의 제례질서를 파괴하는 패륜이요,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불효이자 불충이라는 내용이 담긴 상소를 올려 신서파를 공격하였다. 이에 정조는 배교를 거부한 윤지충과 권상연을 처형하고 천주교의 교주로 지목받은 권일신을 유배시키는 것으로 그치고 더 이상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를 확대시키지 않았다.

이 진산사건을 계기로 나라에서 국법으로 천주교를 금하자 다산도 천주교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공서파의 공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산은 1792년 4월 9일에 부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삼년상을 지냈기 때문에 반대파의 공격을 한동안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년상을 마치고 33세인 1794년 7월 23일에 국자감(성균관) 직장으로 복직했을 때 지은 「제국자직장부관除國子直講赴館」을 보면, 당시 다산이 느꼈던 두려움과 상실감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다산이 사환기에 처했던 정치적 상황은 외롭고 위태로웠지만,

47) 전라도 진산의 천주교 신자 윤지충이 1791년에 모친상을 당했을 때 천주교 의식에 따라 혼백과 위패를 폐지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외사촌 권상연도 고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조정에서는 진산군수 신사원에게 이들의 체포를 명하고 심문하였는데, 윤지충과 권상연은 끝내 배교를 거부하여 처형되었다. 이 사건을 진산사건·신해박해·호남옥사라고 한다. 윤지충은 다산의 외사촌이다. 당시 정조는 가톨릭교의 교주로 지목받은 권일신을 유배시키는 것으로 그치고 더 이상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를 확대시키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다산은 고단한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다산이 33세이던 1794년 10월 말에 경기암행어사가 되어 적성·연천·삭녕 지역을 암행 감찰하는 과정에서 경기관찰사 서용보의 부정과 협잡을 임금에게 보고하여 파직되도록 하였고, 그 지역 민중의 처참한 생활을 목격하고 「봉지염찰도적성촌사작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과 「기민시飢民詩」와 같은 장편고시를 지어 위정자들과 사대부들에게 알렸다. 아래에 인용한 시는 「봉지염찰도적성촌사작」의 일부이다.

개꼬리 같은 조 이삭 세 줄기,
 닭 창자 같은 마른 고추 한 꿩미.
 깨진 항아리 뚫린 곳 형겔으로 밭랐고,
 시렁은 떨어지지 않게 새끼줄로 묶었네.
 낫수저는 오래 전에 이정에게 빼앗기고,
 쇠 냄비는 최근에 옆집 부자에게 빼앗겼네.
 닳아 해진 무명이불 오직 한 채뿐이라,
 부부유별 그 말은 가당치도 않구나.
 아이들 구멍 난 저고리는 어깨 팔꿈치 드러나고,
 태어난 이래 바지와 버선은 입어보지 못하였네.
 큰아이 다섯 살에 기병으로 등록되고,
 작은 아이도 세 살에 군적에 올라 있어,
 두 아들 세공歲貢으로 오백 푼을 물고 나니,
 빨리 죽길 바라는데 옷이 무슨 소용 있으리.

龍尾三條山粟穎, 鷄心一串番椒辣.

破甕布糊敝穿漏, 皮架索縛防墜脫.
 銅匙舊遭里正攘, 鐵鍋新被隣豪奪.
 青錦敝衾只一領, 夫婦有別論非達.
 兒稚穿襦露肩肘, 生來不著袴與襪.
 大兒五歲騎兵簽, 小兒三歲軍官括.
 兩兒歲貢錢五百, 願渠速死況衣褐.⁴⁸⁾

경기 암행어사의 중책을 맡아 민생을 몰래 살피던 다산은 적성촌의 어느 백성의 집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위와 같이 읊었다. 그 집에 먹을 것은 개꼬리 같은 조 이삭 세 줄기와 닭 창자 같은 마른 고추 한 꿩미 뿐이었다. 낫수저와 쇠 냄비는 이미 고을 이정과 이웃집 부자에게 빼앗겼고, 하나뿐인 이불은 닳아서 해졌고 아이들 입고 있는 옷은 구멍이 나서 어깨와 팔꿈치가 다 드러날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 두 아들의 세공歲貢(해마다 연말에 바치는 공물)으로 오백 푼을 물고 난 뒤에는 살아갈 방도가 전혀 없어 오직 죽기만을 바랄뿐이었다. 단지 이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적성촌 백성 대부분의 삶이 이처럼 비참하였기 때문에 다산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산은 이 시를 짓고 나서 곧바로 「기민시」를 지어 굶주리는 백성을 제대로 구휼하지 않는 목민관들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아래 인용한 시는 「기민시」의 일부이다.

고을 원님이 어진 정치 베풀어,
 백성들 구휼하려 사재를 내놓는다기에,

48) 『시집』 권2, 「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定本』 제1책, 258-259쪽).

걷고 또 걸어 관아 문에 이르러,
 입 벌리고 죽 술으로 나아가네.
 개나 돼지도 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음식을,
 사람이 옛처럼 달게 먹는다.
 어진 정사 베푸는 것 바라지 않고,
 사재 털어 구휼함도 원치 않네.
 관가의 재물상자 남이 엿보는 것 싫어하니,
 우리들 야윈 것이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관가 마구간에 있는 사또가 아끼는 말의 살은,
 실은 우리의 살로 만들어진 것이라네.
 슬피 울며 관아 문을 나가니,
 현기증이 나서 앞길이 희미하여,
 잠시 누런 풀 언덕으로 가서,
 무릎 펴고 우는 아이 달래면서,
 고개 숙여 서캐를 잡노라니,
 두 줄기 눈물이 줄줄 쏟아지네.

縣官行仁政, 賑恤云捐私.
 行行至縣門, 喁喁就湯糜.
 狗彘棄不顧, 乃人甘如飴.
 亦不願行仁, 亦不願捐貲.
 官篋惡人窺, 豈非我所羸.
 官廐愛馬肥, 實爲我膚肌.

哀號出縣門, 眩旋迷路岐.
 暫就黃莎岸, 舒膝挽啼兒.
 低頭捕蟣蝨, 汪然雙淚垂.⁴⁹⁾

목민관은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을 구휼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고을의 수령이 굶주리는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 관아 문 앞에 걸어 놓은 죽 술에는 개와 돼지도 먹지 않을 형편없는 죽이 들어 있을 뿐이었다. 고을 수령은 백성들에게 나눠주어야 하는 곡식을 빼돌려 자신이 착복하였고, 자신이 아끼는 말에게 먹였다. 그래서 다산은 관가 마구간에 있는 사또가 아끼는 말의 몸에 붙어 있는 살이 백성들의 살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 것이다. 백성들이 먹어야 할 곡식을 말이 먹었으니, 말의 몸에 붙어 있는 살은 곧 백성들의 살인 셈이다. 이처럼 비참한 모습을 보고 다산은 두 줄기 눈물을 줄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다산이 지은 장편고시 「봉지염찰도적성춘사작」과 「기민시」는 경기 암행어사를 다녀온 다산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시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다산은 36세이던 1797년 윤6월 2일에 곡산부사에 부임하여 2년 동안 목민관의 소임을 훌륭히 해냈다. 다산이 곡산부사로서 행한 일들은 목민관으로서 구세제민의 일단을 보여주는 빛나는 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산은 곡산에 부임하자마자 도적으로 몰렸던 이계심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경영京營에 상납하는 모든 포목을 직접 면전에서 재어 보고 『오례의』에 있는 포백척도布帛尺圖를 시용척時用尺과 비교하여 2촌의 차이

49) 『시집』 권2, 「飢民詩」(『定本』 제1책, 261~262쪽).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圖를 상고하여 자를 만들어 경영京營의 동척銅尺과 합치시켜 백성의 포목을 받아들여 민생을 편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고마고雇馬庫(역마 이외의 민간의 말을 징발하여 관리하던 곳)의 가하전加下錢(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돈)을 조사하고, 벌꿀에 지나치게 부세를 가하는 것을 바로잡고 검지법檢地法을 행하고, 살인한 도적을 엄습해 잡고, 겸제원兼濟院을 세워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의 거처를 편안하게 해주었으며, 정당을 세우고, 여덟 가지 법규를 세우는 등의 치적을 올렸다. 특히 사람을 대함에 귀천의 차별을 두지 않아 못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장천용과 교류하며 흉금 터놓고 가슴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천용자가天慵子歌」를 지어 천용을 후세에 전하였다. 특히 1797년 겨울에는 『마과회통』을 완성하여 아이들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다산은 38세인 1799년에 5월 5일에 형조참의에 제수되어 임금의 명에 의해 옥사를 처결하는 일체의 권한을 형조판서에게서 위임 받았다. 그러나 다산이 옥사를 잘 처리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아 노론벽파 집권 당인들은 1799년 6월 22일에 사간원 헌납 민명혁을 사주하여 다산을 탄핵하게 하였다. 다산은 신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임금에게 소를 올리고 형조참의에서 물러났고, 이듬해인 1800년 여름에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후 다산은 1801년 3월 2일에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었다가 10월 20일에 황사영백서사건에 연루되어 한양으로 송환되어 문초를 받은 후 11월 5일에 옥에서 나와 전라도 강진에 이배되었다.⁵⁰⁾

50) 저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800년 6월 28일에 정조가 승하하고, 11월 18일에 졸곡제가 끝나기가 무섭게 태비 정순왕후 김씨(1745~1805)는 시파의 모든 고관들을 파직하고 그 자리에 노론벽파 이병모·심환지·김관주 등을 앉혔다. 그리고 1801년 1월에 전국에 천주교를 금하는 법령을 공포하고 천주교 신자를 잡아들일 것을 명하였다. 정순왕후와 노론벽파 당로자들은 신유옥사를 일으켜 천주교를 빌미로 남인을 비롯한 반대세력들을 숙청

다산은 1801년 11월 중순 눈보라가 치는 겨울날에 유배지 강진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강진으로 이배된 이후에 다산의 삶의 자세는 이전과 달라졌다. 재난을 모두 당하고 난 뒤에 비로소 긍정적인 생각이 생겨난 것이다. 다산은 강진으로 이배된 직후에 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여 주었다.

근래에 내가 상자 속의 옛 시고들을 점검해보니, 귀양살이하기 이전엔 금마옥당(한림원과홍문관)의 사이를 훨훨 날던 때였는데도 그때 지은 시편들은 대개가 처량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한 내용이었고, 장기에서 유배 살던 때에 지은 시들에 있어서는 더욱 우울하고 슬픈 기상이었다. 그러나 강진에 귀양 온 이후의 작품들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활달하며 확 트인 시어들로 되어 있었다. 생각해보건대 재난이 앞에 닥쳐올 때에는 이렇게 활달한 기상을 지닐 수 없었으나 재난을 당하고 난 이후로는 아마도 재난에 대한 걱정은 없지 않겠는가.⁵¹⁾

하고자 하였다. 다산은 1801년 1월 9일 새벽에 체포되어 정약전·정약중·이가환·이기양·권철신·오석충·홍낙민·이승훈·김건순·김백순·최창현·홍교만 등과 함께 옥에 수감되었다. 이때 다산은 누명을 벗을 만한 증거가 많아서 형틀을 벗고 금부 안에 보방 되었고 노론의 여러 대신들이 백방할 것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지난 날 암행어사 정약용에 의해 경기관찰사에서 파직된 서용보가 불가하다고 고집하여 2월 27일 밤에 경상도 장기현으로 정배되었다. 그리고 8개월쯤 지난 10월 20일에 황사영백서사건에 연루되어 서울로 송환되어 27일에 투옥되었다. 이때 홍희운(홍낙안)과 이기경 등 공서파는 온갖 계교로써 조정을 협박하여 스스로 대간의 자리에 들어가 계를 올려 다시 국문하기를 청하고 반드시 다산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정일환 등 노론 대신들이 도와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51) 『문집』 권18, 「又示二子家誠」(『定本』 제4책, 34쪽). “近日余檢余箱中舊藁, 風霜以前, 翱翔乎金馬玉堂之間, 而所作詩篇, 皆淒楚壹鬱, 至長饗謫中詩, 尤幽咽可悲. 至康津以後之作, 多曠達恢廓之語, 意者菑害在前, 既不得有此氣象, 自茲以往, 庶乎其無憂也耶?”

위의 인용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다산은 강진에 유배된 이후에 비로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활달해졌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에 대해 다산은 이미 재난을 다 겪어서 재난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산에게 일어난 심경의 변화는 이후 다산이 유배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산은 41세인 1802년에서 「벽력행」이라는 시의 미련에서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여, 천지가 장구한 것을 본받으리라.”⁵²⁾라고 읊었는데, 이 구절은 노자의 『도덕경』 제7장에 나오는 ‘천장지구天長地久’를 점화한 것이다. 다산은 비록 자신이 유배된 몸이지만 노자의 말씀, 즉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되었다. 하늘과 땅이 장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늘과 땅이 자신만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래서 오래살 수 있는 것이다.”⁵³⁾라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천지가 장구한 이유는 자신만을 살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노자의 말씀은, 천하의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다산의 의지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다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비록 18년 동안이나 유배지에 묶여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 다산은 백성들의 고단한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는 두보가 재상 이임보의 농간에 의해 과거 급제에 거듭 실패하고, 10년에 걸친 장안에서의 궁핍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회와 인생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민중의 삶에 깊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다산이 첫 번째로 착수한 일은 강진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애환을 시로 담아내는 것이었다. 이미 다산은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

52) 『시집』 권4, 「霹靂行」(『定本』 제1책, 431쪽). “黽勉且爲善, 天地本久長”

53) 『道徳經』 7장. “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있을 때 「기성잡시」 27수를 지어 장기 지방 사람들의 모습과 생활을 시로 묘사하였고,⁵⁴⁾ 「장기농가」 10장을 지어 농민들의 애환을 시로 읊었으며, 「오죽어행」과 같은 우언시를 지어 권력자들과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한 바 있었다. 이제 강진에서도 「탐진촌요」와 「탐진농가」와 「탐진어가」와 같은 작품을 지어 탐관오리에게 핍박받는 농민들의 고통을 읊어 권력자들과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예컨대 다산은 「탐진촌요」 제7수에서 “새로 짠 무명베가 눈처럼 고운데, 아전이 와서 이방에게 낼 돈이라고 빼앗아가네. 누전(장부에 빠진 전지)의 조세를 성화같이 독촉하며, 삼월 중순에 배가 출발한다고 하네.”⁵⁵⁾라고 읊어 두 가지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힘들여 무명베를 짜내자마자 아전들이 와서 이방에게 바칠 돈이라고 하며 빼앗아가는 것을 비판하였고, 두 번째는 조세 장부에 누락된 전지에 대한 조세를 아전들이 착복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다산이 이 시 아래에 기재한 “왕적王籍에 누락된 민결民田이 6백여 결에 이르는데 그것을 재결災結로 거짓 보고하고 있으니 국가의 조세가 얼마나 많이 축이 나겠는가.”⁵⁶⁾라고 한 기록을 보면, 당시 강진 지역의 조세 장부에 빠져 있는

54) 『시집』 권4, 「鬢城雜詩二十七首」(『定本』 제1책, 390~392쪽). 제6수에서 “여인들 말씨 화가 난 듯 또 어찌면 애교스러워, 손면孫穆처럼 쓴다 해도 묘사를 다 못하네. 한 푼도 돈을 들여 다리 살 생각을 앓고, 두 가닥 머리채를 이마 앞에만 매둔다네.”(女音如慍復如嬌, 孫穆書中未盡描. 不用一錢思買鬢, 額前紅髮插雙條.)라고 읊거나, 제7수에서 “새로 짠 생선기름 온 집안이 비린 냄새, 들깨도 안 심는데 참깨가 있을쏜가. 김무침 접시에선 머리카락 끌려나오고, 가마솥에 지은 돌벼밥에는 모래가 있네.”(新榨魚油腥滿家, 青蘇不種況芝麻. 石苔充豆杞牽髮, 山槽烹銕飯有沙.)라고 읊은 것, 그리고 제15수에서 “아내 맞이할 때에는 고래수염 자를 주고, 자식 분가시킬 때는 게딱지 술 나눠준다.”(迎妻好贈鯨鬚尺, 析子皆分蟹甲鎗)라고 읊은 것이 그 예이다.

55) 『시집』 권4, 「耽津村謠十五首」(『定本』 제1책, 425~427쪽). 제7수 “棉布新治雪樣鮮, 黃頭來博吏房錢. 漏田督稅如星火, 三月中旬道發船.”

56) 『시집』 권4, 「耽津村謠十五首」(『定本』 제1책, 425~427쪽). “民田之漏於王籍者, 六百餘結, 其僞災稱是, 公室之賦幾何?”

민전이 6백여 결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전들은 그 6백여 결에서 나오는 조세를 국가에 바치지 않고 자신들이 나눠 먹은 것이다. 「탐진농가」 제8수에서는 백성들이 넓은 연못에 물고기를 기르지 않고 연꽃도 심지 않는 까닭은 물고기와 연꽃 때문에 관리들에게 부림을 당하거나 그들에게 행패를 당할 것을 염려해서라고 하였고,⁵⁷⁾ 「탐진어가」 제9수에서는 “육방의 아전들의 기세가 수령을 압도하여, 붉은 패를 차고 날마다 어촌을 찾아오네. 선첩船帖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지 말라. 관가는 본래부터 문 지키는 호랑이었으니.”⁵⁸⁾라고 읊어서, 육방의 아전들이 수령을 명을 빙자하여 어촌에 들이닥쳐 선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마을을 휘젓고 가는 비열한 행태를 비판하였다. 본래 관가가 있는 이유는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지금 관가에서는 호랑이처럼 관아의 문을 막고 서서 백성들에게 으르렁거린 지가 오래되었음을 말하였다.

다산은 강진에서 오랜 기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냈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을 비롯한 국가제도의 병폐와 탐관오리의 부정과 횡포, 그것으로 인한 백성들의 괴로움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에 다산은 당시 조선후기 사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니, 대개 털끝만큼 작은 일도 병폐가 아닌 것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한 뒤에야 끝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 끼고 방관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⁵⁹⁾라고 진단하였다. 다산은

57) 『시집』 권4, 「耽津農歌十首」(『定本』 제1책, 427~428쪽). 제8수 “陂澤漫漫不養魚, 兒童愼莫種芙蓉. 豈惟蓮子輸官裏, 兼怕官人暇日漁.”

58) 『시집』 권4, 「耽津漁歌十章」(『定本』 제1책, 429~430쪽). 제9수 “掾閣嵯峨壓政軒, 朱牌日日到漁村. 休將帖子分眞贋, 官裏由來虎守門.”

59) 『문집』 권12, 「邦禮艸本序」(『定本』 제2책, 399~404쪽). “竊嘗思之, 蓋一毛一髮, 無非病耳, 及今不改, 其必亡國而後已. 斯豈忠臣志士所能袖手而傍觀者哉!”

이대로 두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 충신과 지사는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제 다산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조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다산은 여러 편의 사회시와 애민시를 지어 위정자와 탐관오리의 횡포를 꾸짖었고,⁶⁰⁾ 18년의 유배기간에 사회·경제·사상·경학·정치·법률·군사·지리·의학·음악·언어·문자·문학 등의 분야의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이 500여 권의 책에는 망해가는 나라의 명운을 살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방책과 이론적 근거가 들어 있다. 다산은 500여 권의 책을 편찬하고 저술하는 과정에서 눈이 나빠져 안경을 쓰고, 이가 빠지고, 복사빠가 세 번이나 구멍이 나고(踝骨三穿), 몸의 일부가 마비되기도 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다산은 1818년 8월에 해배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183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18년의 삶을 살았는데, 이 기간에도 연구와 저술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흙흙신서』·『아언각비』·『사대고례산보』·『상서고훈』·『지원록』 같은 책들을 완성하였다. 이처럼 다산은 자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60) 몇 가지 예를 들면, 「애절양」은 조선후기 삼정의 폐단 중 특히 군정의 폐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고, 「충식송」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죽게 만드는 탐관오리를 증오심 것이고, 「송발송행」은 소교들의 횡포와 송정松政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며, 「이노행」은 관료들이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탐관오리를 잡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야합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특히 1810년에 전라도에 가뭄과 기근이 매우 심하여 집을 떠나 유랑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다산은 그 광경을 「채호」·「발묘」·「교맥」·「오거」·「시랑」·「유아」라는 제목으로 읊고 그것을 「전간기사」라 하였다. 이해 6월에는 두보의 삼리시三吏詩에 차운하여 「용산리」·「파지리」·「해남리」를 지어 아전들의 횡포와 폭압을 비판하였고, 온 집안과 산골짜기에 득실거리는 파리를 줄주려 죽은 백성들의 전신轉身이라고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파리를 죽이지 못하게 한 뒤에 파리를 조문하는 글 「조송문」을 지어 굶어 죽은 백성들을 애도하고, 탐관오리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3) 眞眞

다산의 중요한 미의식 가운데 하나로 ‘眞眞’을 들 수 있다. 다산의 시문에 나타난 ‘眞眞’에 대한 추구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천진天眞’에 대한 추구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眞實’에 대한 추구이다. ‘천진’은 조작이나 거짓이 없는 순수하고 참된 마음을 일컫는 말이고, ‘진실’은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천진’과 ‘진실’은 거짓이 없는 순수하고 참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천진’은 다산의 내면에 작용하여 다산의 심성을 천진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쳐, 다산이 자신과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 타인이나 문물을 대할 때 자신과 다르다고 하여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진실’은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진실을 찾아내어 밝히는 행위, 즉 진실규명에 있어 큰 추동력이 되어 주었다.

먼저 천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산이 천진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1778년(17세) 11월에 전라도 화순의 동림사에서 연담 유일 스님(1720~1799)을 만난 것에서 비롯되었다. 화순에서 태어난 연담 유일은 당대 화엄학의 대종주로 추앙받았고, 유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화순현감으로 있던 부친 정재원은 평소 교분이 두터웠던 유일 스님이 화순의 만연사와 동림사에서 수도하며 불경을 강론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정약전과 정약용을 동림사로 보내 유일 스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였다. 이때 다산이 유일 스님의 고매한 인품과 청빈한 삶, 정성스러운 태도와 뛰어난 경륜에 탄복한 사실은 유일 스님에게 드린 시 「증유일상인贈有一上人」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만물은 청정해야 천진을 얻을 수 있으니, 유가니 묵가니 다룰 필요 없다

네.”⁶¹⁾라고 읊은 구절에 다산이 유일 스님을 통해 얻은 ‘천진’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 즉, 다산은 구도의 본질은 청정한 마음으로 천진을 얻어서 세속의 물욕에 영합하지 않는 데 있으니, 자신과 다르다고 하여 미워하거나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일 스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이다.⁶²⁾ 이후에 다산이 여러 스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 특히 유배지에서 스님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불가의 사업을 도와준 것과, 『대동선교고大東禪敎考』를 저술하여 삼국시대 이후의 불교사와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한 것은, 모두 이날 유일 스님에 의해 천진을 체득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⁶³⁾

그런데 다산의 이와 같은 깨달음은 유가와 묵가와 불가뿐 아니라 천주교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산은 23세인 1784년 4월 15일에 만형수의 기제사를 지낸 후 한양으로 들어가는 배 안에서 이벽(1754-1785)에게 처음 천주교 교리를 들었는데, 그때의 느낌을 기술한 글에서 “배 안에서 이벽에게 천지조화의 시초와 형신形神과 생사生死의 이치를 듣고는 정신이 멍하고 놀라워 마치 끝없이 펼쳐진 은하수를 보는 것 같았다.”⁶⁴⁾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다산은

(61) 『시집』 권1, 「贈有一上人」(『定本』 제1책, 172쪽). “物淨斯得天, 儒墨何須爭.”

(62) 이때 다산이 유일 스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겠다. 첫 번째는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유일선사의 고매한 인품과 청빈한 삶과 정성스러운 태도와 뛰어난 경륜 때문인데, 특히 유일선사와 같은 조선후기의 고승들은 불경은 말할 것도 없고 유학 경전에도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당시 17세 유생이었던 다산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산이 속한 성호학파의 학풍 때문이다. 물론 다산은 성호 이익에게 직접 배우지 못하고 성호가 남긴 유고를 보며 성호를 사숙하였지만, 당시 다산이 교유했던 남인의 명사들은 거의 대부분 성호 이익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호학파의 개방적인 학풍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63) 김봉남, 「茶山 詩文에 나타난 불교에 대한 인식 고찰—스님과의 교유와 사찰 유람 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1, 대동한문학회, 2017 참조.

(64) 『문집』 권15, 「先仲氏墓誌銘」(附見閒話條)(『定本』 제3책, 242-247쪽). “舟中聞天地造化之始, 形神生死之理, 惘惘驚疑, 若河漢之無極.”

낮설고 이질적인 천주교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산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이후에 다산은 서학과 서교(천주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천주교를 믿었던 남인 신서파 인사들과 함께 『칠극』과 『천주실의』 같은 천주교 서적과 『기하원본』 같은 서학 서적을 읽었고, 이벽과 이승훈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영세를 받고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1791년 겨울에 호남에서 진산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나라에서 국법國法으로 천주교를 금지하자 어쩔 수 없이 천주교와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⁶⁵⁾

다산의 시문에는 천진함과 관련된 기록이 종종 보인다. 그중의 하나가 다산 23세인 1784년 여름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다. 다산은 이때 여러 날 먹지 못하여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천진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즉 1784년 여름에 여자종이 며칠째 굶고 있는 주인이 보기 딱하여 이웃집 호박을 몰래 따왔다가 아내에게 야단맞는 일이 있었는데, 다산은 그 광경을 보고 아내나 여종을 탓하지 않고 “내가 책 만권 읽었다 하여 아내가 어찌 배부르리오! 쌀 두 이랑만 있었어도 여자종이 죄 지을 일 없으리라.”⁶⁶⁾라고 하며 모든 잘못을 무능한 자신에게 돌렸다. 만약 다산이 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호박을 훔친 여종을 탓하거나 자신을 무안하게 한 아내를 탓했을 것이다. 또한 다산 34세인 1795년 4월에는 규영부 교서에서 물러나 녹봉을 받지 못한 것이

(65) 이에 대해서는 김봉남, 「다산과 천주교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 고찰」, 『대동한문학』 41, 대동한문학회, 2014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66) 『시집』 권1, 「南瓜歎」(『定本』 제1책, 202-203쪽). “破書萬卷妻何飽, 有田二頃婢乃潔.”

오래되어 여러 날 음식을 먹지 못하였는데,⁶⁷⁾ 다산은 단지 가난을 탄식하며 “아내가 탄식하니 내 체면 꺾이고, 자식들 굶주리니 가르침도 필요 없네. 꽃과 나무를 봐도 도무지 쓸쓸할 뿐이고, 『시경』과 『서경』도 모두 귀찮을 뿐이네.”⁶⁸⁾라고 읊을 뿐이었고, 권력자에게 아첨하거나 정도正道에서 벗어나는 작위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 또한 다산에게 천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산이 사환기에 정치적 반대세력인 노론벽파와 잘 지내려고 노력한 것, 친구 이기경이 유배되었을 때 그의 집안을 도와주고 이기경이 해배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⁶⁹⁾ 공서파가 되어 자신을 공격한 이기경을 여전히 친구로 생각한 것 등은 모두 다산이 천진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산은 타인에게 천진한 삶을 살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1813년 8월 4

67) 다산은 1794년 10월 말에 경기암행어사가 되어 임무를 수행한 후, 34세인 1795년 1월 17일에 사간원 사간에 제수되고 이어서 동부승지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2월 17일에는 병조참의에, 3월 10일에는 우부승지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4월에 규영부 교서직에서 물러났는데, 『사암선생연보』에 의하면 이때 다산이 규영부 교서를 그만 둔 것은 일종의 악당들이 헛소문을 선동하여 모함하고 헐뜯고 간사한 꾀를 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산의 가슴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었으며, 다시는 대궐에 들어가 교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1795년 4월부터 1795년 7월 26일에 금정찰방에 보임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다산은 녹봉을 받지 못해 못하였고, 굶주리는 날이 많았다.

68) 『시집』 권2, 「歎貧」(『定本』 제1책, 271쪽). “妻咨文采屈, 兒餒教規寬. 花木渾蕭颯, 詩書總汗漫.”

69) 1791년 겨울에 진산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신헌옥사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이승훈(1756-1801)은 조사 받는 과정에서 다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기경이 자신들을 모함했다고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승훈은 동생 이치훈(?-?)과 함께 죄 없이 풀려났지만, 이기경은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고 말았다.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기경의 유배를 유쾌하게 생각하였지만 다산은 그것을 불길하게 여기고 우리 당의 화가 이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후 다산은 이기경의 집에 자주 가서 그의 어린 자식을 다독거리고, 그의 어머니 상사에 1천 전을 부조하기도 하였다. 특히 1795년 봄 나라에 대사령이 있을 때 이기경이 석방되지 못하자 다산은 이익운에게 부탁하여 이기경을 석방하도록 요청하였다. 『문집』 권16, 「自撰墓誌銘 集中本」(『定本』 제3책, 252-281쪽) 참조.

일에 대둔사로 떠나는 초의 의순(1786~1866)을 위해 지어 준 글의 마지막 단락에서, 천책선사의 말을 인용하여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미혹되지 말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⁷⁰⁾ 다산은 초의의 마음이 남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해진 것을 느끼고, 초의스님에게 거 짓이나 꾸밈이 없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참된 마음인 천진함을 기르도록 당부한 것이다.

다산은 사환기를 보내는 동안 정치적 반대파의 견제를 받으며 처신하기가 어려웠고, 파직되어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는 궁핍한 삶을 살면서 천진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웠지만, 항상 천진을 지향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은 유배지 장기와 강진에서도 지속되었다. 그리고 1818년 8월에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비로소 보다 자유롭게 천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 예로 다산이 1828년(67세) 5월에 송대의 시인 육유(1125~1210)의 「농가하사農家夏詞」에 차운하여 친구 윤영희(1761~?)에게 보낸 시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又次陸放翁農家夏詞六首」 제3수

부추 받은 쥐처럼 검고,
하늘 타리는 곰처럼 달려 있네.
보리 까끄라기는 바람이 부니 하얗고,
관솔불은 밤이 깊을수록 붉어지네.
절구가 움직이니 온갖 소리들 그치고,

70) 『문집』 권17, 「爲草衣僧意洵贈言」(『定本』 제3책, 401~403쪽). “天頌禪師云, 或經過市鄘, 見坐商行賈, 只以半通泉貨, 哆哆譁譁, 罔爭市利, 何異百千蚊蚋在一甕中, 啾啾亂鳴耶? 適其所溺者禪, 言則是也.”

순가락 들리면 배부르긴 마찬가지네.
이 가운데 도리어 즐거움이 있으니,
진실로 삼공三公의 지위와도 바꾸지 않는다네.

韭圃犁如鼠, 瓜樓結似熊.
麥芒風處白, 松火夜深紅.
杵動群喧止, 匙翻一飽同.
此中還有樂, 眞不換三公.⁷¹⁾

이 시에서 다산은 부추 밭·하늘 다리·보리 까끄라기·관솔불을 보며 거친 밥을 먹으며 강호에서 사는 즐거움을 삼공의 지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였다. 다산이 이 시를 지은 해가 1828년이니 다산이 1818년에 해배되어 집으로 돌아온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산은 해배 직후부터 줄곧 조정에 등용되어 삼공의 지위에 올라 자신의 역량을 한껏 펼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러한 기대를 접고 67세의 나이로 대자연 속에서 천진한 삶을 즐기고자 하였다.

이제부터는 '진실규명'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겠다. 다산의 '진眞(참됨)'에 대한 추구는 '진실규명'으로 발휘되었고, 이는 다산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였다. 예컨대 다산이 1794년에 경기 암행어사로 나가 경기관찰사 서용보의 비리를 고발하여 파직되게 한 것과, 1797년에 곡산부사로 부임하여 이계심의 난을 공정하게 처리한 것 등은 모두 참된 마음을 가지고 조작이나 사심 없이 진실을 추구한 결

71) 『시집』 권6, 「又次陸放翁農家夏詞六首」(『定本』 제1책, 510~511쪽) 제3수.

과였다. 특히 다산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희생된 사람을 위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산은 후손들에게 비본(秘本)으로 전하라고 당부한 다섯 편의 묘지명⁷²⁾에서 정헌 이가환·녹암 권철신·복암 이기양·매장 오석충·손암 정약전의 무고한 죽음을 밝히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⁷³⁾ 다산은 당시 제신들의 상소와 대계, 정조의 비답과 전교, 모해자들의 밀담과 당시의 정황 등을 묘지명에 적어 내용의 신빙성을 높였다.

1801년 봄에 일어난 신유옥사 때 신문을 받던 도중에 옥사한 이가환(1742~1801)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공이 죽은 뒤 나라 사람들의 반이 공을 가련히 여겨 물의(物議)가 같지 않았으며, 또 “5~6년이 안 되어 임금의 마음이 돌아서면, 사태의 추이를 알 수 없다.”라고 하니, 당인들은 다시 음모하여 호남 옥사를 죄로 얹어 공이 을묘년(1795) 여름에 권일신, 주문모 등과 모의하여 서양선박을 맞아 오기 위하여 은 2일궐을 내었다는 말과 또 경술년(1790) 가을에 이미 이런 모의가 있었다는 말을 만들어 냈다. 옥사가 성립되어 포청에서 금부로 이송되니, 드디어 공과 이승훈 등에게 가율(加律)하기를 청하였다. 아아, 권일신은 벌써 신해년(1791)에 죽었는데 어찌 4년 뒤인 을묘년의 모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문모는 을묘년에 처음 왔는데 어찌 5년 전인 경술년

72) 다섯 편의 묘지명은 「정헌 이가환의 묘지명(貞軒墓誌銘)」, 「녹암 권철신의 묘지명(鹿菴權哲身墓誌銘)」, 「복암 이기양의 묘지명(伏菴李基讓墓誌銘)」, 「매장 오석충의 묘지명(梅丈吳錫忠墓誌銘)」, 「손암 정약전의 묘지명(先仲氏墓誌銘)」이다.

73)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자가 「茶山 墓誌銘의 主題와 樣式的 特徵 —辛酉獄事에 連累된 五人에 대한 묘지명에 관하여」, 『어문논집』 49, 2002를 통해 다룬 바 있다.

의 모의에 참여할 수 있었겠는가. 경술년 가을에는 공이 주필朱筆을 가지고 과거시험장에 있었고 을묘년 여름에는 공이 편집의 책임을 맡아 규영부에 있으면서 상휼象笏과 패옥佩玉을 차고 매일 대궐로 나아갔는데, 어떻게 주문모와 비밀히 만났겠는가? 사형수를 위협하여 죽은 사람을 무고誣告하여 함정에 빠뜨리고, 후일에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안전을 만들었으니, 매우 잔인하다 하겠다.⁷⁴⁾

이가환은 1791년에 진산에서 일어난 호남옥사 이후 10년 동안 공서파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다가 1801년 신유옥사에 연루되어 투옥된 뒤 고문을 받던 중 단식 끝에 옥사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가환의 죽음을 가련히 여겨 의론이 분분하였는데, 공서파의 조작에 의해 이가환은 ‘불평하는 무리들을 끌어 모아 스스로 교주가 되었다’⁷⁵⁾는 비방을 받으며 끝내 서교의 ‘괴수’라는 죄목으로 죽었다.⁷⁶⁾ 그러므로 다산은 이가환이 천주교와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것을 밝히는 데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다산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무고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74) 『문집』 권15, 「貞軒墓誌銘」(『定本』 제3책, 203~224쪽). “公既死, 半國憐之, 物議不齊, 且曰, 不過五六年, 聖明回照, 事未可知. 於是, 黨人陰謀, 鍛鍊湖南之獄, 謂公於乙卯夏, 與權日身周文謨, 議邀西舶, 出銀二鎰. 或云庚戌之秋, 已有此議, 獄成, 自捕廳, 上于禁府, 遂請公與李承薰等, 加律. 噫, 權日身, 辛亥既死, 能與乙卯之議乎! 周文謨, 乙卯始來, 能與庚戌之議乎! 庚戌之秋, 公方手握朱筆, 揚于試院, 乙卯之夏, 公方身任編摩, 宿于奎府, 象笏珥佩, 日趨于彤陛, 何乃與周文謨密聚哉, 誑死囚誣死人, 爲後日難脫之案, 其亦不仁甚矣.”

75) 『문집』 권15, 「貞軒墓誌銘」(『定本』 제3책, 203~224쪽). “司憲府執義閔命赫等, 啓曰, 李家煥, 以凶醜餘孽, 包藏禍心, 引誘羣憾, 自作教主.”

76) 『문집』 권15, 「貞軒墓誌銘」(『定本』 제3책, 203~224쪽). “竟以魁率致辟, 不亦悲乎.”

다산의 ‘진실규명’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인물의 ‘진면모’를 밝히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산은 무고한 죽음을 당한 분들의 참모습을 밝혀 세상에 알리고 후세에 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중형 정약전에 대해서 다산은 “오호라! 골육을 해쳐서 자신의 몸과 이름을 보존하는 것이 어찌 그 환난을 순순히 받아들여 천륜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만 하겠는가? 후세에 반드시 공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⁷⁷⁾라고 하였다. ‘골육’은 정약전의 아우인 정약종을 가리켜 한 말이다. 자신이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약종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었는데, 정약전은 골육을 해쳐 자신의 목숨과 이름을 보존하는 대신에 환난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다. 다산은 자신에게 재앙이 닥칠 것을 분명히 알았으나 피하지 않고⁷⁸⁾ 오히려 천륜을 지켜낸 정약전의 행위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 것이다. 만약 다산이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후세의 누가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4) 회회

‘회회’는 뉘우치는 것이다. 우여곡절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산에게 뉘우침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뉘우침은 의기소침하고 망연자실한 다산의 마음을 위로하였고, 치유하였으며, 일으켜주었다. 즉 다산의 내면에 가득했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뉘우침이었다. 다산은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 다산

77) 『문집』 권15, 「先仲氏墓誌銘」〈附見閑話條〉(『定本』 제3책, 242~247쪽). “嗚呼, 與其骨肉相殘, 以保其身名, 曷若順受顛覆, 而無愧乎天倫. 後世必有知其心者矣.”

78) 『문집』 권15, 「先仲氏墓誌銘」〈附見閑話條〉(『定本』 제3책, 242~247쪽). “明知禍患之來, 而亦莫之爲矣.”

의 마음을 무수히 괴롭혔다. 다산의 정서는 위축되었고 우울하였으며 무기력할 때가 많았다. 18년의 긴 유배기간에도 그러하였고, 해배된 이후 18년의 여생을 사는 동안에도 그러하였다. 특히 해배 이후 노년기를 맞이한 다산의 정서는 해배 직후의 기쁨이 조정에 등용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회한·탄식·비애로 바뀌었다가, 회갑 이후에는 인생을 돌아보며 체념과 달관으로 바뀌었고, 노년의 후반기에 이르러 다시 자탄·자조·허무로 바뀌는 등 안정되고 평온하지 못한 채 부침을 거듭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산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일으켜 준 것은 뉘우침이었다. 다산은 불안과 두려움과 자조와 허무가 자신의 내면을 잠식하기 전에 뉘우침을 통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 그리하여 뉘우침은 의기소침한 다산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 넣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다산은 중형 정약전을 위해 지은 「매심재기」의 말미에서 “나는 뉘우쳐야 할 일이 둘째 형님에 비교하면 만 배나 더하니, 이것을 빌어다가 내 방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내 방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⁷⁹⁾라고 한 바 있다. 이 글에서 다산이 ‘뉘우쳐야 할 일이 둘째 형님에 비교하면 만 배나 더 하다’고 한 것은 글을 부탁한 중형을 위해 의례적으로 한 말이 아니다. 진실로 다산은 후회하고 뉘우칠 일이 많았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다산은 “뉘우침이 마음을 길러주는 것은 마치 분노가 곡식의 싹을 키워주는 것과 같다. 분노는 썩은 오물로써 그 싹을 길러 좋은 곡식으로 만들고, 뉘우침은 죄과로부터 덕성을 기르게 하니, 그 이치는 한가지이다.”⁸⁰⁾라고

79) 『문집』 권13, 「매心齋記」(『定本』 제3책, 86-87쪽). “鋪之悔, 視仲氏將萬倍, 乞以是名吾室可乎. 在乎心, 雖不以名吾室可也.”

80) 『문집』 권13, 「매心齋記」(『定本』 제3책, 86-87쪽). “悔之養心, 如糞之壅苗. 糞以腐穢, 而壅

하였다. 분노가 곡식의 싹을 일러주는 것처럼 뉘우치는 행위는 마음을 길러준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곧 자신을 위해 한 말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을 하였다.

성인은 우환이 있을 때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오로지 과오를 스스로 뉘우친다. 그러므로 문왕은 유리美里에 갇혀서 『주역』을 부연하였고, 공자는 진陳과 채蔡에서 궁액을 당하면서 십익十翼을 지었던 것이다.”⁸¹⁾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다산의 뉘우침이 단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산은 문왕과 공자가 고난과 궁액을 당했음에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주역』을 부연하고 십익을 지었던 일을 생각하였다. 다산은 문왕과 공자를 본받아 자신도 저술을 통해 과오를 뉘우치고 괴로움을 이겨내고자 하였다. 다산은 신유옥사에 연루되어 1801년 3월 2일에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었는데, 유배지 장기에서 진미공陳眉公(진계유陳繼儒: 1558~1639)의 행적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리라 결심하였다.⁸²⁾ 진계유는 29세에 유자儒者의 의관을 태워버리고 벼슬길에 대한 뜻을 접은 뒤에 곤산崑山 남쪽에 숨어 82세에 생을 마칠 때까지 오직 책을 읽고 저술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다산이 가슴을 치며 뉘우친 것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내용이 유배지 장기에서 지은 「수오재기」에 적혀 있다.

之爲嘉穀，悔由罪過，而養之爲德性，其理一也。”

81) 『문집』 권13, 「每心齋記」(『定本』 제3책, 86~87쪽). “聖人之有憂患也，不怨天不尤人，惟過之自悔。故文王拘於美里，實始演易，孔子厄於陳蔡，厥有十翼。”

82) 『시집』 권4, 「古詩二十七首」(『定本』 제1책, 396~401쪽). “歷選千古人，但願陳眉公。結廬崑山內，棲身圖史中。”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 급제의 명예가 기뻐할 만하다는 것을 알고, 한양으로 가서 과거 공부에 빠져 들어간 것이 10년이였다. 비로소 처지가 바뀌어(대과에 급제 하여) 조정의 반열에 나아가 문득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한 것이 12년이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유배되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을 떠나고 부모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 가운데로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⁸³⁾

위 인용문을 보면, 다산이 뉘우친 것은 ‘자신을 잘못 간직하여 잃어버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산은 먼저 과거 급제의 명예를 누리기 위해 한양에 들어가서 10년간 과거공부에 매진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산은 과거공부를 시작하면서 초년에 꿈꾸었던 은일의 결심을 스스로 저버린 것을 후회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28세에 대과에 급제한 뒤 벼슬길에 올라 12년간 미친 듯이 동분서주한 것을 뉘우쳤다. 다산은 1794(33세) 가을에 윤지범에게 부친 시의 미련에서 “십팔년 세월이 하루와 같은데, 붉은 종이에 성명이 기록된 것을 후회합니다.”⁸⁴⁾라고 읊고, 며칠 후에는 “깨끗한 강호에서는 세월 더디게 흐르는데, 홍패紅牌 하나 때문에 마음으로 맺은 기약 어졌다네. 뱀 비늘에 숨어 햇빛 피하며 끝내 누굴 기다리나, 모기 눈썹에 등지 지었으니 또한

83) “吾謾藏而失吾者也。幼眇時，見科名之可悅也，往而浸淫者，十年，遂轉而之朝行，忽爲之戴烏帽穿錦袍，猖狂馳于白晝大道之上，如是者，十二年。又轉而涉漢水踰烏嶺，離親戚棄墳墓，直趨乎溟海之濱叢篁之中而止焉。”

84) 『시집』 권2, 「寄贈尹佐郎持範」(『定本』 제1책, 247쪽). “一十八年如一日，悔教紅紙姓名題.”

절로 위태롭네.”⁸⁵⁾라고 읊었는데, 다산은 이 두 편의 시를 통해 초년에 맺었던 은일의 기약을 어기고 대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위태로운 상황을 자초한 것을 후회하였다.

다산은 자신의 처신과 처세가 잘못된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다산이 1797년(36세)에 동부승지를 사직하며 올린 상소에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한 후회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바로 천주교에 관한 것이었다. 다산은 정조 임금에게 올린 그 글에서 서양의 사설 邪說(천주교)에 대한 책을 보았으며 마음속으로 좋아하여 사모하였고, 이를 거론하며 남에게 자랑하면서도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하였다.⁸⁶⁾ 그리고 1797년(36세) 여름에 해좌 정범조에게 지은 올린 시 가운데 「자회自悔」에서는 자신의 처세가 잘못된 것을 후회하며 “재주는 화씨벽和氏璧을 품을 정도도 아닌데, 품채는 감히 은나라 호련瑚璉에 견주었고, 처세를 호랑이 등에 올라타듯 하면서, 충성심만 품고 둔한 말을 채찍질 하였습니다.”⁸⁷⁾라고 읊었다. 다산은 자신의 재주가 귀한 옥을 알아본 변화卞和보다 못하면서 은나라 때의 제기인 호련처럼 우수한 인물에 자신을 견준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리고 노둔한 말과 같은 충성심만 가지고 정계에 들어와 기호지세를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중도에 내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단지 충성심만 가지고 미련하게 호랑이등에 올라탔던 다산은 정적에

85) 『시집』 권2, 「秋風八首次杜韻」(『定本』 제1책, 249~250쪽). 제4수 “瀟洒江湖日月遲, 紅牌一面誤心期. 蛇蚺避景終誰待, 蚊睫營巢也自危.”

86) 『문집』 권9, 「辨謗辭同副承旨疏」(『定本』 제2책, 167~174쪽). “臣於所謂西洋邪說, 嘗觀其書矣. 然觀書豈遽罪哉? 辭不迫切, 謂之觀書, 苟唯觀書而止, 則豈遽罪哉? 蓋嘗心欣然悅慕矣. 蓋嘗學而夸諸人矣. 其於本源心術之地, 蓋嘗如膏漬水染, 根據枝葉而不自覺矣.”

87) 『시집』 권3, 「夏日述懷, 奉簡族父吏曹參判」(『定本』 제1책, 342~350쪽). “才非懷楚璞, 姿敢比股瑚. 處世如騎虎, 懷忠庶策驚.”

의해 축출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결국 1801년 봄에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고 말았다.

다산은 유배지 장기에서 지은 「수오재기」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을 몹시 후회하였지만, 아직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니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제 다산은 뉘우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장기에 유배되었던 7개월 동안 『기해방례변』을 짓고, 『삼창고훈』을 고증하고, 『이아술』 6권을 지었다. 그리고 장기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관찰하여 「기성잡시」 27수와 「장기농가」 10장을 지었다. 또 「오죽어행」과 같은 우언시를 지어 권력자들과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다산의 이러한 노력은 1801년 겨울에 전라도 강진으로 이배된 이후에는 더욱 맹렬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에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편찬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경세유표』 48권, 『목민심서』 48권, 『흠흠신서』 30권, 『아방비어고』 30권, 『아방강역고』 10권과 같은 경세서와 『시경강의』 12권, 『상례사전』 50권, 『논어고금주』 40권, 『주역심전』 24권과 같은 유가경전 주석서는 주목할 만한데, 경세서가 쇠망해가는 국가를 경영하고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제하기 위한 방책이라면 경전 주석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념과 정신이기 때문이다. 다산은 여러 제자들과 협력하여 이 500권이 넘는 저술을 완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산은 시력이 몹시 나빠지고, 몸의 일부가 마비되었고, 복사빠는 세 번이나 구멍 났으니, 그야말로 분골쇄신의 노력이었다.

다산은 57세이던 1818년 8월 중순에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1836년 2월 22일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18년의 삶을 살았다. 이 기간에 다산

의 정서는 복잡다단하였는데,⁸⁸⁾ 해배 직후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등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회한으로 바뀌었고, 점차 탄식과 비애가 늘어났다. 예컨대 1819년 12월 말에 읊은 시에서 다산은 “얼음과 눈이 두껍게 얼어, 이 평탄한 길을 막았네. 젊을 때는 명성이 있었는데, 늙어서는 명예가 없네.”⁸⁹⁾라고 하며 허물과 후회가 가슴속에 가득 쌓여 있어서 관직에 나가 개과천살할 날을 기다렸으나 반대파의 방해 때문에 등용이 되지 않는 것을 한탄하였다. 그러나 회갑을 맞이한 1822년부터는 회한과 비탄의 정조는 줄어들고 자각과 순응, 체념과 달관의 정서가 드러났다. 예컨대 1824년(63세) 4월 21일에 두미협(두미협)의 배 위에서 읊은 시에서 “이로 인해 세상 사물을 맘대로 구할 수 없고, 혹 얻어지는 건 모두가 우연임을 알았도다.”⁹⁰⁾라고 하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사를 체념하였고, 1826년(65세) 겨울에 읊은 시 「석좌夕坐」의 미련에서는 “아, 외물에게 부림을 당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의 인생이 웅당 귀착점이 있으리라.”⁹¹⁾라고 하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독자적으로 해야지 외물에 구속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산의 노년기 중에서도 후반에 속하는 67세 이후부터 72세까지는 다시 자탄·자조·허무의 정서가 시에 종종 나타났다. 예컨대 1828년(67세) 5월에 단오에 윤영희에게 부친 시의 수련에서 “나태하고 쓸모 없는 이 몸, 항상 얼마나 살지 생각할 뿐이요, 식은 재와 마른 나무처럼

88) 이에 대해서는 논자가 「茶山 解配以後期 詩 研究」에 수록된 內面意識의 諸樣相에 관하여, 『대동한문학』 35, 201.에서 다룬 바 있다.

89) 『시집』 권7, 「佮年惜衰暮也. 尤悔積衷, 遷改無日, 愀然自悼, 冀友相憐.」(『定本』 제1책, 650쪽). 제1수 “氷雪淩淩, 阻玆平路. 總角有聞, 白首无譽.”

90) 『시집』 권7, 「四月二十一日上寺, 二十二日出山宿江村 二十三日泛舟斗尾 舉網不得魚 悵然有作.」(『定本』 제1책, 615쪽). “因知世物不可求, 時一遇之本皆偶.”

91) 『시집』 권6, 「夕坐.」(『定本』 제1책, 547쪽). “物役嗟何補, 吾生會有歸.”

정을 두지 않는다네.”⁹²⁾라고 읊은 것과 “이유도 없는 이 몸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이런 무용지물이 어느 때나 돌아가리오.”⁹³⁾라고 읊은 것이 그것이다. 다산은 스스로를 사마귀나 혹은 같은 ‘贅疣’와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이 붙어버린 ‘변무駢拇’와 같은 무용지물에 비유하며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특히 70세인 1831년 10월 18일에 홍현주와 마주 앉아 연경으로 사신 간 홍석주를 생각하며 지은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又疊前韻」

날씨가 추워지니 돌다리 건너오는 손님 없어,
오직 천 권의 책을 읽을 뿐이네.
쭈정리와 쌀겨도 꿀맛 같음을 이미 알고 있고,
여전히 안경 쓰고 창문을 마주하고 있다네.
약한 깃으로 바다 메우려는 짓을 가련하게 여기고,
작은 벌레가 애써 강물 거슬러 가는 것이 우습구려.
썩은 선비가 끝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으리오,
초파리 같이 살면서 술항아리를 떠나자 못한다오.

歲寒無客度山砦, 千卷書中眼一雙.
已識秕糠如蠟味, 猶張罨黹對油窓.

92) 『시집』 권6, 「端午日次韻陸放翁初夏閑居八首, 寄滋翁」(『定本』 제1책, 508~509쪽). 제5수
“懶散常思幾許生, 死灰槁木不鐘情.”

93) 『시집』 권6, 「端午日次韻陸放翁初夏閑居八首, 寄滋翁」(『定本』 제1책, 508~509쪽). 제7수
“無故形骸寄世間, 贅疣駢拇幾時還.”

自憐弱羽思填海, 長笑微蟲力溯江.

畢竟腐儒成底事, 醯鷄生活不離缸.⁹⁴⁾

이 시를 통해 다산이 70세에 겨울을 보내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날씨가 추워진 겨울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자 다산은 오직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었고, 안경을 쓴 채 종종 창문을 보며 눈의 피로를 풀었다. 그러나 문득문득 엄습하는 비애감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다산은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의 딸이 동해에 빠져 죽었는데, 그녀 녀이 정위精衛라는 새로 환생하여 항상 서산西山의 나무와 돌을 날라다가 동해를 메웠다는 고사를 생각하며 능력은 없으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가련하게 생각하였다. 다산은 자신을 무엇도 이룰 수 없는 썩은 선비라고 하고, 술로 근심을 풀었던 자신을 초파리에 비유하며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고 자조하였다. 다산은 이로부터 2년이 지난 1833년(72세) 봄에 연대정에서 지은 시에서도 “가소롭다 깊은 나무 푸른 그늘 속에서, 일생을 글만 읽으며 강가에서 늙는 것이.”⁹⁵⁾라고 읊으며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려던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강가에서 허무하게 늙어가고 있는 자신을 슬퍼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산의 해배이후 노년기의 정서는 기쁨에서 회한·탄식·비애로 바뀌었다가 회갑 이후로 체념과 달관으로 바뀌었고, 노년의 후반기에 이르러 다시 자탄·자조·허무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산의 정서가 이처럼 기복을 겪었던 이면에는 조정에 등용되지 못하

94) 『시집』 권6, 「又疊前韻」(『定本』 제1책, 583~584쪽).

95) 『시집』 권7, 「練帶亭十二絕句」(『定本』 제1책, 630~632쪽). 제5수 “回笑綠陰深樹裏, 窮年鑿紙老江邊.”

는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늘 자신을 성찰하고 뉘우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산은 유배지 장기에서 품었던 진계유의 삶을 본받겠다는 결심을 상기(想起)하며 183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독서와 경전연구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기간에 『흙흙신서』·『아언각비』·『사대고례산보』 등을 완성하였고, 특히 1834년에는 73세의 고령으로 『상서고훈』과 『지원록』을 개수하여 합편하였으며, 이해 가을에는 『매씨서평』을 개정하며 노익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뉘우침은 다산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고, 다산으로 하여금 삶이 끝나는 날까지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였다.

3. 맺음말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의 문학에 나타난 네 가지 미의식, ‘은隱’·‘제濟’·‘진眞’·‘회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네 가지는 다산이 일생 동안 가장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엉켜 갈등을 빚기도 하였고 때로는 서로 어우러져 상생하기도 하면서 다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로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킨 것은 ‘은隱’과 ‘제濟’였다. 다산은 초년에 자취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좋아하였고, 은거하여 유가경전을 연구하려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려는 뜻을 품게 됨으로써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다산은 대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나가 이윤·부열·이필과 같은 재상이 되어 구세제민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노론벽파와 공서파의 견제와 공격을 받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초년에 품은 뜻을 저버린 것을 후회하면서도 낙향하지 않았고, 함장(涵章)의 의미를 생각하며 장차 덕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비록 정적의 공격을 받아 18년의 귀양살이를 했지만, 초년에 품었던 은거하여 경전을 연구하고자 했던 열망을 실천하여 나라를 구제하고 백성을 살릴 방책이 들어 있는 500여 권의 저술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해배 이후 18년의 여생을 사는 동안에도 고향에서 은둔하며 경전을 연구하고 저술을 편찬하며 초년에 품었던 열망을 이루어 나갔다. 그러므로 결국은 초년에 품었던 은일의 열망은 유배기와 해배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기간에 비로소 백성과 나라를 살리려는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다산에게 있어 ‘은隱’과 ‘제濟’는 갈등 관계에서 상생의 관계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산은 조작이나 거짓 없이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세속의 물욕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것을 배척하지 않는 ‘천진天眞’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학문적으로는 불가와 도가 등 다른 학문을 배척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는 반대파인 노론 벽파 인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진실규명을 중요하게 여겨 서용보의 비리를 고발하여 파직시켰고, 이계심의 난을 공정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여 희생된 남인 인사들에 대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쓴 인물의 참모습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천진’은 ‘은일’이나 ‘함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천진이 결여된 은일은 진정한 은일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일하여 학문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천진을 잃어버린다면, 그 자리에는 욕심이나 아집, 아첨과 배척 같은 것들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진이 결여된 함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마음에 천진함이 없다면 자랑하고 영합하고 배척하여 ‘함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뉘우침’은 수많은 고난과 풍파를 겪은 다산의 마음을 위로해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다산은 문왕과 공자와 진계유를 본받아 저술을 통해 과오를 뉘우치고 괴로움을 이겨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8년이라는 긴 유배 기간과 해배 후 18년 동안에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방책이 들어 있는 500여 권의 저술을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다산에게 있어 ‘뉘우침’은 ‘살리는’ 것의 계기가 되었고 원동력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만약 다산이 뉘우치지 않고 신세를 한탄하고 남을 원망하며 허송세월했다면, 500여 권의 위대한 저술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산에게 있어 저술은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품는 행위였다. 그리고 훗날 누군가가 자신의 저술을 읽고 느끼고 깨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다산을 이끌어 준 강력한 추동력이 되어 주었다.

(논문투고일 2023년 7월 21일, 심사확정일 2023년 9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0월 6일)

참고문헌

원전

정약용, 『정본 여유당전서』,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정규영 편, 『사암선생연보』, 문헌편찬위원회, 1961.

논문과 단행본

강민구, 『한국한문학의 미학적 접근』, 보고사, 2012.

김봉남, 「다산 묘지명의 주제와 양식적 특징 —신유옥사에 연루된 오인에 대한 묘지명에 관하여」, 『어문논집』 49, 2002.

_____, 「다산의 시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자아의식」, 『동아인문학』 9, 동아인문학회, 2006.

_____, 「다산 수학기 시에 나타난 내면의식의 제양상」, 『어문논집』 53, 민족어문학회, 2006.

_____, 「다산의 장기 유배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제양상」, 『한국한문학연구』 38, 한국한문학회, 2006.

_____, 「다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변모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_____, 「다산 해배이후기 시 연구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제양상에 관하여」, 『대동한문학』 35, 2011.

_____, 「다산과 천주교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 고찰」, 『대동한문학』 41, 대동한문학회, 2014.

-
- _____, 「茶山 詩文에 나타난 불교에 대한 인식 고찰 —스님과의 교유와 사찰 유람 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1, 대동한문학회, 2017.
- _____, 「茶山 丁若鏞의 詩文에 나타난 苦惱와 悔恨 —유배 이전 시기의 사건과 교유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70, 한국한문학회, 2018.
- 김상홍, 「다산학이 초의선사에게 끼친 영향」, 『한문교육연구』 1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 김학성, 『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사, 2004.
- 박석무, 「정약용, 그의 시대와 사상」, 『다산학보』 10, 1989.
- _____,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2003.
- 송재소, 『시로 읽는 다산의 생애와 사상』, 세창출판사, 2015.
- 신정근, 『동아시아 예술과 미학의 여정』, 성균관대출판부, 2018.
- 이기경 원편, 이만채 편, 이시준 역, 『벽위편』, 명문당, 1987.
- 정 민, 『한시미학산책』, 휴머니스트, 2010.
- _____, 『삶을 바꾼 만남』, 문학동네, 2011.
- _____, 『다산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1.
- _____, 「다산 逸文을 통해본 승려와의 교유와 강학」, 『한국한문학연구』 50, 한국한문학회, 2012.
- _____,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김영사, 2022.
- 정석중, 「다산 정약용의 강진유배기 스님과의 교환」, 『동양학』 2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7.
- 차 벽, 『다산의 후반생』, 돌베개, 2010.
- 한국한문학회 엮음, 『한국한문학과 미학』, 태학사, 2003.

본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문학에 나타난 총체적 삶에서 형성된 미의식을 고찰한 것이다. 개인이 가장 바라는 것에 미의식이 담겨 있는데, 정약용에게 있어 그것은 ‘은隱’·‘제濟’·‘진眞’·‘회悔’였다. ‘은隱’은 자신의 몸이나 재능을 숨기는 것이고, ‘제濟’는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고, ‘진眞’은 천진天真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고, ‘회悔’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이 네 가지는 정약용이 일생 동안 가장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엉켜 갈등을 빚기도 하였고 때로는 서로 어우러져 상생하기도 하면서 정약용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약용은 초년에 은거하여 유가경전을 연구하려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려는 뜻을 품게 됨으로써, ‘은일’의 열망은 ‘살림’의 열망과 충돌하게 되었다. 정약용은 벼슬 길에 나가 구세제민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반대파의 견제와 공격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비록 정적의 공격을 받아 18년 귀양살이를 했지만, 초년에 품었던 열망을 실천하여 나라를 구제하고 백성을 살릴 방책이 들어 있는 500여 권의 저술을 편찬하였다. 정약용은 ‘천진함’과 ‘진실규명’을 중요하게 여겨 서용보의 비리를 고발하여 파직시켰고, 이계심의 난을 공정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억울한 일로 죽임을 당한 남인 인사들을 위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뉘우침’은 수많은 고난과 풍파를 겪은 정약용의 마음을 위로해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정약용은 문왕과 공자와 진계유를 본받아 저

술을 통해 과오를 뉘우치고 괴로움을 이겨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8년이라는 긴 유배기간과 해배 후 18년 동안에 500여 권의 저술을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정약용에게 있어 ‘뉘우침(悔)’은 ‘구제하는(濟)’ 것의 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만약 정약용이 뉘우치지 않고 신세를 한탄하고 남을 원망하며 허송세월했다면, 500여 권의 위대한 저술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다산, 정약용, 문학, 시문, 미의식.

Abstract

A Study o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in Tasan Jeong Yak-yong's Literature

Kim Bong-nam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aesthetic consciousness formed in the overall life in Jeong Yak-yong's literature. There's a sense of aesthetics in what the individual wants most, For Jeong Yak-yong, it was 'hidden(隱)', 'succor(濟)', 'true(眞)' and 'repentance(悔)'. These four things were what Jeong Yak-yong wanted the most in his life. Therefore, sometimes they were tangled and conflicted with each other, and sometimes they harmonized and coexisted with each other, which greatly influenced Jeong Yak-yong's life. Jeong Yak-yong had a desire to study the Confucian scriptures after retiring in his early years. However, by later having the intention of rescuing the country and its people, The desire of 'hidden(隱)' came to conflict with the desire of 'succor(濟)'. Jeong Yak-yong tried to achieve the will of the old people by going on a government career, but failed to achieve it due to the checks and attacks of the opposition. Although he was exiled in 18 years after being attacked by the opposition, he compiled more than 500 books containing measures to succor the

country and succor the people by practicing his aspirations in his early years. Jeong Yak-yong regarded ‘innocentness’ and ‘finding the truth’ as important, and accused Seo Yong-bo of corruption and dismissed him, and handled Lee Gye-sim’s rebellion fairly. In particular, efforts were made to find out the truth of the case for those of the same party who were killed by unfair things. ‘repentance(悔)’ comforted Jeong Yak-yong’s heart, which had undergone numerous hardships and storms, and suggested a direction for him to the future. Jeong Yak-yong tried to repent of his mistakes and overcome his suffering through his writings, imitating King Mun, Confucius, and Jin Gye-yu. As a result, more than 500 books were completed during the long exile period of 18 years and 18 years after the dissolution. Therefore, for Jeong Yak-yong, ‘repentance(悔)’ was an opportunity and a driving force for ‘succor(濟)’. This is because if Jeong Yak-yong had not repented and lamented the situation, blamed others, and wasted time, more than 500 great writings would not have been born.

Key Words | Tasan, Jeong Yak-yong, Literature, poetry and prose, Aesthetic consciousness.